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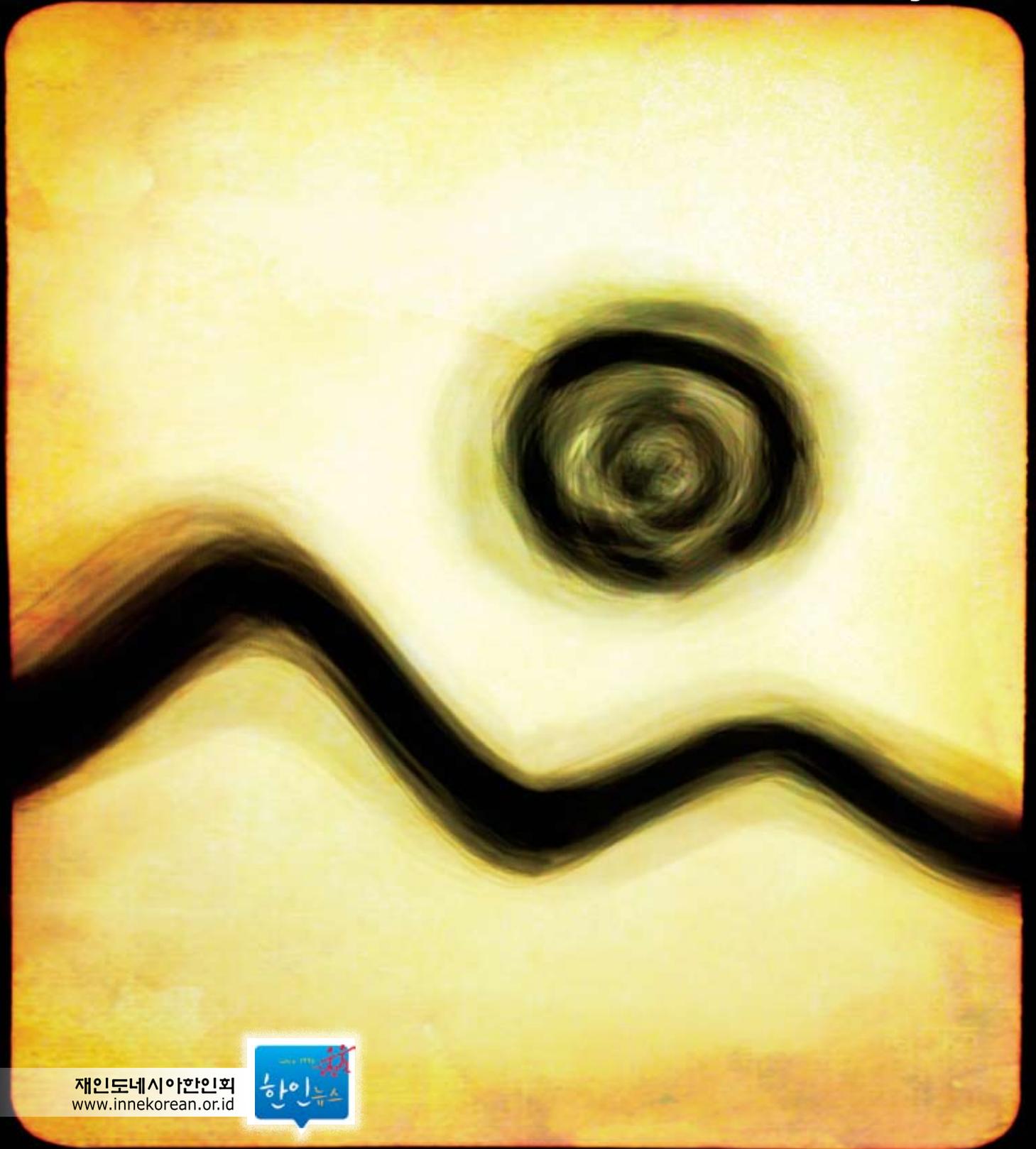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10

2011 VOL.184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The Pride of Korea!
The Pride of

Unicorn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유니콘

Made In Korea의 자부심을

세계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Best Quality . Best Price . Best Service

Unicorn. 
PT.  UNICON INDO MESIN

유니콘미싱공업(주)

Office : Jl. Pulo Asem Utara Raya No.27 Rawamangun Jaktim 13220
Telp. (021) 4786-2424, 4755528 / 9 Fax. (021) 4755531
E-mail : unicon_indo@yahoo.com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계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항공,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에어, 로얄타이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콰타스항공, KLM 로얄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바타비아, 스리 위자아

"가루다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Garuda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Resort	Room Type	2인 1실			1인 1실		
		항공 + 2박		1박 추가	항공 + 2박		1박 추가
		2/5~2/28	12/25~2/4		2/5~2/28	12/25~2/4	
IBIS Kemayoran ★★★	Standard	759,000	789,000	34,000	829,000	859,000	68,000
IBIS Arcadia ★★★	Standard	769,000	799,000	38,000	839,000	869,000	76,000
IBIS Slipi ★★★	Standard	769,000	799,000	41,000	849,000	879,000	81,000
Kartika Chandra ★★★	Standard	769,000	799,000	42,000	859,000	889,000	83,000
IBIS Mangga Dua ★★★★★	Superior	779,000	809,000	43,000	859,000	889,000	85,000
Mercure Rekso ★★★★★	Superior	799,000	829,000	43,000	879,000	919,000	85,000
IBIS Tamarin ★★★	Standard	799,000	829,000	45,000	889,000	919,000	90,000
Aston Marina ★★★★★	1 Bedroom	799,000	829,000	47,000	899,000	929,000	93,000
Le Meridien ★★★★★	Superior	829,000	859,000	58,000	949,000	979,000	115,000
Crowne Plaza ★★★★★	Deluxe	839,000	869,000	63,000	969,000	999,000	125,000
Gran Melia ★★★★★	Deluxe	879,000	919,000	85,000	1,059,000		170,000
Mulia Senayan ★★★★★	Splendor	959,000	989,000	122,000	1,219,000		244,000
Four Seasons ★★★★★	Superior	969,000	999,000	124,000	1,219,000		248,000
Ritz Carlton ★★★★★	Grand Room	999,000		140,000	1,289,000		279,000
Mandarin Oriental ★★★★★	Superior	999,000		142,000	1,299,000		284,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비자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지 호텔"

	호텔*리조트	풀빌라*산장
발리	★★★★★ ★★★★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Nikko Bali, Melia Holiday Inn, Sanur Beach,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룸복	★★★★★ ★★★	Sheraton Senggigi Senggigi Beach Hotel Holiday Resort
족자카르타	★★★★★ ★★★★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Puri Asri
수라바야	★★★★★ ★★★★	JW Marriot, Shangri-La Plaza, Novotel, Somerset
		Kamuela Vilas Sminyak The Ahimsa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s & Spa Qunci Villas
		Java Banana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창립 20주년!

품질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동중 인도네시아는

1 20년간 축적된 기술로

포장용 비닐 (Poly Bag) 및 프린트에 관한 완벽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 Best Quality & Quick Delivery를 최우선으로 귀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 598-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2012년 4월 11일,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권

문) 재외국민도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예 : '국외 일시체류자')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가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라도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도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입니다.

재 외 국 민	참여할 수 있는 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를 한 자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역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012년 재외선거 일정표

사무일정	실시사항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1. 10. 14.~'12. 5. 11.	'12. 6. 22.~'13. 1. 18.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공관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11. 11. 13.~'12. 2. 11.	'12. 7. 22.~'12. 10. 20.
	국외부재자신고(공관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12. 2. 22.~'12. 3. 2.	'12. 10. 31.~'12. 11. 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2. 3. 3.~'12. 3. 7.	'12. 11. 10.~'12. 11. 14.
선거일 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12. 3. 12.	'12. 11. 1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등 송부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12. 3. 17.~	'12. 11. 24.~
선거일 전 24일부터 선거일 전 23일까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	'12. 11. 25.~'12. 11. 26.
선거일 전 15일부터 선거일 전 14일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12. 3. 27.~'12. 3. 28.	-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재외투표 (6일 중 정하는 기간)	'12. 3. 28.~'12. 4. 2.	'12. 12. 5.~'12. 12. 10.
선거일	개 표	'12. 4. 11.	'12. 12. 19.

대한민국,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에 지금 바로 투표합시다!

제주도가 The New7wonders에서 진행 중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28개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 세계 440여 곳을 후보지로 전 세계 1억 명의 네티즌이 투표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세계 28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되기 위한 최종 투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투표기간 : 현재 ~ 2011. 11. 11 (발표일)

○ 투표방법 : 인터넷 및 전화 투표

<인터넷 투표> : www.new7wonders.com

- 회원가입 필요

- 28개 후보지 중 7곳을 선택 / 소요시간 5분

* 마지막 단계에서 간단한 신상명세 입력 후,
투표시 입력했던 개인 이메일로 보내오는 투표확인
메일에 재접속하면 투표 완료.

(재접속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전화 투표>

- 전화걸기 :

001-44-75-890-012-90(세계 공통)

- 사무국 직원의 안내멘트(영어) 후

“뵙~~~” 음이 나오면

제주도 코드(7715) 입력 후

thank you 멘트가 나온 후 끊어야 함

* thank you 전에 통화종료 시 무효

www.jejun7w.com

내 누님 같은 꽃이여, 국화(국화과)

학명 : *Dendranthema Grandiflorum* Kitamura

꽃말 : 청순, 평화, 고결



국화 옆에서
- 서정주 -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국화는 색깔과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홑꽃형을 비롯하여 겹꽃형, 아네모네형, 탁구공 같은 폼퐁형, 가늘고 긴 거미줄 모양의 스파이더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실내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분화용(초장이 30cm미만) 국화들도 많이 선을 보이고 있다. 추위에 아주 강하여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한 여러해살이 화초로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하상태에서 꽃눈분화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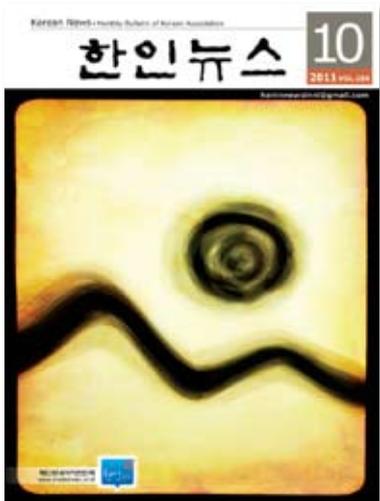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교민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표지설명 ▶▶▶

결실의 계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기쁨과 풍요, 늘 가득하소서!

표지디자인 : Diki Satria Nugraha

2012재외선거안내..... 7

제주에 투표합시다..... 8

산과 들에 피는 꽃 / 한국의 야생화..... 9

차 한 잔 마시며 <김문환> / 문화의 차이..... 12

연재기고<신성철>
/자카르타 한식당 이야기 14

CRS 공모전 심사결과..... 17

인터뷰 / 설태선 재외선거관..... 18

외교통상부 '2011년 재외동포현황' 발간..... 22

자카르타스케치 <엄종한> / 추수..... 23

특집>
한국 전통의 미 꽃담 <이종근>..... 24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한-인니 양국의 공감과 소통의 업로드, 2011한국 문화주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행사를 뒷바라지한 한국문화원과 동포참여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멋진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해봅니다.

새전북일보의 이종근 부장님과 신영덕 교수님(UI)이 귀한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매달 연재 중인 기고문들과 함께 이 달 한인뉴스의 볼거리가 빵빵합니다. 또,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를 확대했습니다. 그 소식도 실렸습니다.

대사관 주최 국경일 만찬에 인니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체감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체육회와 인니동포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5.1070.3065 박 정 자

국경일만찬29

2011 한국문화주간30

이모저모, 한인사회32

- 김영선 대사, 자카르타주지사 예방 / UI 방문
- 국회외교통상통일위, 주인니한국대사관 국정감사
- 국민권익위원회, 재외국민 이동신문고 상담
- 인터넷신문 데일리인도네시아 출범
- 한인회-국정감사반 간담회
- 자유총연맹인니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 법무법인 (유)에이팩스, 인니에서 업무 개시
- 미원인도네시아, 밥퍼해피센터에 무료급식 차량 지원
- 한국자수의 아름다움 전
- 한인니문화연구원 13-14회 열린강좌 개최
- 헤리티지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 국립국어원, 언어현실 반영하여 표준어 확대
- 추석은 추억이다 <취재 : 길나연 한인뉴스학생기자>
- 직소소식

자유총연맹 나라사랑 글짓기대회
최우수작<배현민>/수상자명단..... 52

특별기고>
인도네시아와 한류 1 <신영덕> 54

100년의 삶과 꿈 <편집자>..... 58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김성철>
/ 무슬림이 한달 동안 부르는 새벽송..... 60

길 위에서 <박관구>
/ 느림의 미학62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이승민>
/ 인도네시아 변호사법 64

알림> 함께 해요 67

기획> 인도네시아 <Yuni Sugandini>
/ 인도네시아르바란전통의특색.....68

와칭! 코리아
/ 첫단추부터잘못 채워진묵한정권..... 70

이민청 단속 관련 안내 71

한인회 임원 찬조금.....72

생활정보..... 74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송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엄종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

김 문 환/논설위원

우리 한국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대인관계의 소통매체로서, 또는 호연지기를 발휘하기 위해 음주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음주를 즐기는 정도를 지나, 소위 ‘술이 술을 마시는’ 식의 무절제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하면서 일부 한인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료, 또는 현지 파트너들을 환대할 목적으로 한국식당으로 이들을 초청하면 예외 없이 한국식 음주문화도 함께 곁들여진다. 상대방의 주량이나 의사에 반해 한국식으로 호기를 부리며 강권하기도 하며 그들 앞에서 주량을 과시하다 절제를 벗어난 추태를 보이기도 한다. 푸짐한 주안상을 내어 놓고 상대방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끼리의 음주문화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인의 문화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이에 당황하는 현지인들을 만나게 되며, 심지어는 뒷전에서 자기들끼리 방언을 사용하여 비웃는 듯한 이야기들을 엿듣게 된다.

이슬람 율법은 육류, 식음료, 의약품을 섭취하는데 있어 금기시하는 품목을 ‘하람(Haram, 아랍어 Haraam)’, 허용되는 품목을 ‘할랄(Halal, 아랍어 *halal*)’, 그리고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품목을 ‘무바(Mubah)’ 또는 ‘마끄루(Makruh)’ 라고 구분하여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하람’으로 분류되는 품목에는 돼지고기와 그 성분이 들어있는 모든 제품, 전통방식에 의해 도축되지 않은 동물, 주류, 마약 및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최음제, 육식동물, 신성시하는 조류 등이 포함된다. 수년 전 아지노모토사가 생산하는 제품 원료에 ‘하람’ 성분이 들어있다 하여 이슬람계가 들끓어 회사가 한 때 사활의 기로에 선 적이 있었다. 회교세가 강한 아찌 주, 남부깔리만판 주 같은 곳에선 벌써 수 십년 전부터 주정부 조례에 의해 알코올류 유통을 금지시켜 왔으며 2007년엔 서부 솨바와 군(Sumbawa Barat)에서도 군청 조례를 제정하여 주류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군도의 동쪽 끝 지역인 파푸아 주 같이 주류거래를 금지하면서도 이들 품목이 반입되는 상거래 행위는 방관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취하는 지역도 있다. 목재, 석탄거래 등의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한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남부깔리만판 주 반자르마신 시내의 식당에 들러 반주라도 한 잔 하려면 주인장이 눈치를 보아가며 아예 물주전자에 담아 나오는 맥주를 스틸 넘치게 맛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매년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나 성기일을 전후하여 이슬람 과격단체인 이슬람 수호전선(Front Pembela Islam) 대원들이 두건을 두른 채 몽둥이를 휘두르며 유흥업소를 때려부수는 장면을 연례행사처럼 보게 된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FPI대원들은 반동 인근 지역에 있는 주류판매점을 습격하여 인도네시아 전통주 뚜악(Tuak)을 압수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남부 술라웨시 주 마까사르에서 라마단 기간 중 낮 시간에 영업을 하고 있던 한 식당에 몰려가 기물을 파괴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한다. 현지 지방



언론에 의하면 FPI대원들이 과격행위를 하는 동안 경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다. 비슷한 시점에 이슬람 율법이 가장 철저하게 적용되는 아제 주에선 단식을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 3명이 체포되고, 병꿀루 시장은 민정경찰에게 지시하여 식사를 하던 공무원을 체포해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공권력 행사는 경찰의 소관사항이므로 FPI의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큰소리쳐 보지만 막상 법 집행단계에 이르러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마단 기간 중인 지난 8월 초에는 북부 자카르타 경찰서가 탄중 뿌리옥과 끌라빠가딩 지역 상점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다량의 주류와 폭죽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을 엄두에 둔 체스처에 불과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이 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FPI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공권력이 잠을 자게 되는 현상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는 물론 현지인들도 항상 의문부호를 달아왔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신문기사가 최근 등장하였다. 최근 전 세계 외교가를 뒤흔들고 있는 위키리크스(WikiLeaks) 웹사이트가 FPI와 경찰청간의 유착관계를 폭로한 것이다. 자카르타 포스트지 9월 5일 자를 보면, 현 국정원장인 수판또(Sutanto)가 2006년 2월 경찰청장 시절 미국대사관 앞에서 난동을 부린 FPI에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전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장인 누그로호 자유스만(Nugroho Djayusman)도 FPI를 포함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 이유는 수하르또의 장기 철권정치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그 동안 억눌려 왔던 극단 이슬람권의 에너지가 광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분출구를 열어주었다는 논리이다.

지금 한인사회는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오늘날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기업이나 기업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노사분규나 노사갈등을 겪지 않고 정착한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1970년대 초 한인기업 개척기를 ‘제1의 물결’ 이라 한다면 1990년대 초의 전자산업과 노동집약산업의 진출은 ‘제2의 물결’ 이 될 것이고 진행형인 지금의 대기업진출 붐은 ‘제3의 물결’ 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과거 제1, 2의 물결 당시 완충장치를 거치지 못한 문화의 차이가 충격과 충동로 이어져 결국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잘 터득하고 있을 지금의 ‘제3의 물결’ 주체들은 그들이 겪게 될 문화의 차이를 충격이나 충동로 전이시키지 않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사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으리라 믿는다.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dailykoreaindonesia@gmail.com

자카르타 한식당 이야기

자카르타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지만 한식을 먹거나 한국식품을 구입하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다. 뷔페식당 메뉴에 김치와 불고기가 포함된 고급 호텔도 여럿이다. 식당이나 행사장에서 불고기나 잡채를 맛있게 먹는 현지인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자카르타만 본다면 한식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한 모양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한식당만 140여개, 한국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슈퍼가 10여개이며, 대형마트와 고급슈퍼 그리고 일본슈퍼 등에서도 한국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카르타 한식당에 가면 현지인들이 다양한 음식을 시켜서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10년 전만해도 현지인이 찾는 한식당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맛있다고 소문이 난 한식당은 현지인과 한국인 고객 비율이 반반이 됐다. 최근 개업한 한식당은 현지인 광고매체나 한인 광고매체에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소문만으로 한인과 현지인이 찾고 있으며 이는 현지인 사이에 한식

메니아층이 형성됐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한식고객층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고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인도네시아인의 외식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과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라 한인 수도 증가해 한식고객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점,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문화가 소개되면서 한식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식당이 자카르타에 생길 무렵에는 한식당의 이름이 서울의집, 신라, 코리아가든, 코리아타워, 한국관, 한양가든, 이스타나 코리아 등 주로 한국의 지명을 차용해 한국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유럽처럼 한인 수가 적고 한식당도 많지 않은 지역에서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식당 이름이 고주몽, 청해수산, 가효, 본가, 수라청, 압구정 처럼 더 이상 한국이나 특정지명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한식당이 140여개나 되다 보니 코리아, 한국, 서울 등의 단어를 조합해 사용

하는데 한계가 온 것도 있지만 한국의 유명 음식 점이나 고유명사를 차용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카르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정보가 늘었고, 한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현지화, 전문화되고 있는 한식당

더 나아가 코리아나, 한강, 삼원가든, 채전당, 비빔밥, 순두부 등 한인이 아닌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도 늘고 있고, 이들 식당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과는 다소 차별화된 한식을 먹을 수 있다. 소수이지만 집에서 한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현지인들도 있다. 한국 슈퍼에서 한국 라면이나 과자를 구입하고 한국 양념의 사용법을 묻는 현지인과 가끔 마주친다. 지난해부터 한국문화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식조리경연대회가 열리고 있고, 인도네시아어로 된 한식요리책도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과거 한식당의 식단이 회, 불고기, 갈비구이, 탕, 짜장면, 돈까스, 오므라이스까지 다양했으나, 최근에는 고추몽과 가효 같은 구이전문점, 청해수산과 김삿갓 같은 회전문식당, 대감집 같이 콩을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웰빙을 강조한 식당, 가야성과 아마루 같은 한국식 중국음식 등 한식당의 음식이 전문화되고 있다. 식당이 식단을 전문화시키려면 소비집단이 5만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인 공동체 수의 증가와 함께 현지인 한식 애호가의 수가 적정수준 이상이 됐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현지인에게 한식은 별식이다. 고추몽의 김강 사장은 한인고객은 집에서 늘 먹는 음식이라는 생각에 식당에서는 숯불구이 같이 집에서 먹기 어려운 음식을 선호하지만 현지인들은 고기음식뿐만 아니라 비빔밥에서 잡채까지 골고루 주문한다며 한식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전에 알던 한 미국인은 고기에 쌈을 싸서 먹으면서 ‘재미있다’고 평했고, 어떤 인도네시아인 음식평론가는 자카르타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식을 ‘새로운 맛’이라고 표현하면서 아

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맛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썼다.

자카르타 한식당의 특징 중 하나는 비교적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맛을 내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식무형문화재인 한복진 교수는 “자카르타 한식당의 음식은 한국보다 다소 달고 짜기는 했지만 대체로 맛이 좋다”고 개천절을 앞두고 열린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해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은 4~5만 명이고, 이들의 대부분이 자카르타와 주변지역에 몰려있어 한식당의 고정고객이 되면서, 자카르타에서 한식당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비교적 좋은 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배경이 됐다. 한인이 적은 유럽 등지에서 한식당의 고객이 소수의 현지인과 뜨내기 손님인 한국인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는 것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밥과 김치, 된장과 고추장을 반드시 먹여야 하는 한인이 실제 한식당의 확산과 한식의 보급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식 대중화를 위한 과제는

하지만 자카르타에서 한식과 한식당이 본격적인 대중화로 접어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있다. 한식의 맛을 유지하는 일, 위생문제, 서비스의 질, 경영기법, 현지 행정당국의 인허가 문제 등이다.

한식의 맛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복진 교수는 “음식의 맛은 먹는 사람의 기호에 맞춰야 하고, 재료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그런 점에서 한인들이 즐겨 찾는 인도네시아 음식점 ‘사뎐 또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뎐 또망은 외국인이 힘들어하는 향신료를 줄여서 외국인에게 맛있는 인도네시아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과도한 현지화는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한때 중식당이 유행했으나 어느 순간 퓨전음식이 대세를 이루면서 점차 고객이 끊기고 일식당이나 현지 음식을 파는 음식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식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리법의 표준화와 양념의 소스화가 필요하고, 유통과정에서 한국식품의 품질유지도 필수적이다. 조리법이 표준화되고 스파게티나 일본음식처럼 소스가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현지인도 쉽게 우리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비교적 균일한 맛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가 한식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건강식이라는 점이지만 일부 식당의 음식은 매우 달고 짜고 매울 뿐 아니라 조미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먹은 후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만 들이키게 된다. 중국음식의 경우 조미료를 너무 많이 써서 식사를 한 뒤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많아 차이나이즈 푸드 신드롬(Chinese Food Syndrome)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코리안 푸드 신드롬이라는 말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한식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에는 과시를 위해 음식을 많이 차렸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반찬의 가지 수를 줄이고 음식의 양도 적절하게 조정하는 대신 품질을 높인다면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릇과 음식장식을 보완해 음식 자체를 고급화시킨다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카르타에서 한식당을 하는 한인의 대다수는 음식을 배운 경험이나 식당 운영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들로, 외국에 이주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식당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리법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 음식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식당 운영 노하우가 없어 서비스와 관리가 서투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나 경제단체에서 한식당 운영자를 대상으로 새 식단 개발과 조리법 보급, 맛과 위생 관리 방법 및 서비스와 경영 노하우에 대한 교육을 마련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한식당의 육성은 한식 세계화와 한류 보급의 일환도 되지만 자영업자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은 먹거리라는 고유의 기능과 더불어 문화를 담고 있다.** 식당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이 모이면 정보와 문화의 교류가 일어난다. 포도주 특히 프랑스 포도주가 비싼 이유는 고급 프랑스 문화라는 이미지를 덧씌워서고, 중요한 사람을 일식당에서 접대하는 이유는 비싸고 고급스럽다는 선입관 때문이다. 따라서 한식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한식도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기업 대상 CSR 공모전 심사결과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주최한 『한국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 공모전(11.9.10-9.24)』에 신청하신 기업 CSR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모든 기업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선정기업

- 최우수상 : 코린도그룹, 미원인도네시아, 삼익악기
- 우수상 : CJ인도네시아, 롯데쇼핑인도네시아, 드림센토사인도네시아, 삼성물산인도네시아 간다에라 이벡타법인, PT. KRAKATAU POSCO
- 장려상 : 인도네시아우리은행, 레펠그룹, 그린텍스타일
- 특별상 : 굿네이버스인도네시아

○ 시상 :

- 10. 6 CSR 포럼행사시(10. 6. 09:00, 리츠칼튼호텔 구닝안)
- 상패와 부상(최우수상, 우수상에 한함)

○ 수상기업 관계자는 시상절차 설명관계상 10. 6. 08: 30까지 CSR 포럼장(Ballroom 3, 2층)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럼종료 후 대사 주최 오찬장에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국별의전연락관 지원요원 모집

미디어 지원요원 모집

행사지원요원 모집

명예 e-reporter 모집

2012년 3월 26일 ~ 27일, 서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지원하게 될 행사지원요원과 명예 e-reporter를 모집합니다.

~ 신청접수

○ 기 간 : 2011. 10. 1(토) ~ 10.31(월)

○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seoulnss.go.kr 을 방문하여 [행사지원요원신청] 팝업창 또는 안내 배너 클릭

※ 문의 :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대행사 (주)인터컴 인력팀

(☎ 02-6242-2827, 6259-6372)



투표준비 잘 되어가요?

이달에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의 설태선 영사를 만나 2012년의 재외선거에 대해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들어보았다. 설 영사는 재외선거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도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까지 선거관련업무를 관리하게 된다. 선거관련 업무라 하면 크게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업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업무, 재외투표관리업무, 재외투표 홍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업무 등을 들 수 있다.

■ 투표를 위한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요.

재외투표를 위한 준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획과 방침에 따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차 모의선거(11. 24)를 실시하고 금년에 2차 모의선거(7.8)를 실시하여 재외투표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공관의 재외투표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 등 절차사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선거권과 관련이 있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말며,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여부에 따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재외투표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재외국민이 되겠군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 신고(「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가 되어있는 재외국민을 말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국내거소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말합니다.

■ 투표권이 주어지는 전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투표율은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지역적인 이슈보다는 국가적인 이슈를 갖는 선거의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예측하기는 힘들어도 내년도 선거에 보다 많은 유권자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해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했으면 합니다.

■ 재인니한인동포 중 유권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인니한인동포 중 유권자수는 약 28,8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약 36,000명의 80%를 유권자로 추산한 수치입니다.

■ 투표를 위한 실질적인 과정, 즉 참여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알기 쉽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외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 국외부재자 신고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 첨부)’를 제출(우편신고 가능, 타인을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전 49일 부터 40일

까지 10일간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우편신청은 불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외국인등록부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중 어느 하나를 더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2012년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를 하셔야 합니다.

■ 투표가 끝난 다음의 투표 . 개표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국외부재자 신고 등을 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기간(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에 공관(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문화원 대강당 - Equity Tower 17층-에 설치예정)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2011년 7월 2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내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재외



선거인에게 직접 발송하지 않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할 예정이며 국내에서와 같이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신크에서 수백억의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 비율이 40%일 때 237억, 30%일 때 167억, 20%일 때 100억의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시 소요예산은 5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표는 재외투표가 끝나면 재외투표지를 국내로 회송하여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8시 이후에 국내의 각 개표장에서 국내투표지와 함께 진행됩니다.

■ 선거관리를 담당하신 입장에서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십니까.

2011년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제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선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인도네시아한인언론을 통한 홍보, 각종 인터넷 매체이용, 재외선거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고해 왔으며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재외투표는 국외에 있는 재외국민의 끊임없는 참정권 회복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숙지하시고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외에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는 주재국의 주권문제 등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외선거제도 입법시 국내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6개월을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선거법위반행위자에 대해 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사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화이후 정착되어 오고 있

는 우리 선거문화의 공명선거 기초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올바른 성찰능력을 유지하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성숙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재외투표제도의 의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모범적인 신흥 민주국가로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재외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시사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의 선거관리 경험을 살려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통하여 국민의 통합된 의사형성이 가능해 졌고, 재외투표 제도는 정치선진국으로의 진입여부 가능자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로 국가권력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재외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만큼 재외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외투표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국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재외동포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고 깨끗한 재외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와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민 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재외투표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출할 후보자나 정당의 정보를 알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 드리기 위해 앞서 재외선거 관리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선거 관리여건은 국가별 환경차이에 따른 선거절차의 복잡성, 재외공관의 선거관리경험 부족,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낮은 이해도 등으로 매우 취약하고, 행정·사법적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국내 수준의 위법행위 조사·단속은 사실상 어려워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선거운동이 공정성 확보를 우선 가치로 두고 재외투표제도가 입법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외에서의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식선거법에 정하여진 선거운동 기간(예비후보자 등 일부 제외 있음)에 정하여진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 82의4, § 218의14① 4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법 § 218의14① 6호)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제한은 없으나 허위사실의 공표나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으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육성으로 하되, 확성장치나 녹음·녹화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할 수 없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법에서 정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만 허용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만이 주체) 선거운동기간 중 방송광고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선거운동기간 중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외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식선거법 제255조 제1항 2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선된 자는 낙선된 자를 위로하고 낙선된 자는 당선된 자를 축하해주는 그래서 선거가 온 국민의 축제가 되는 정치문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외교통상부 '2011년 재외동포현황' 발간

- 재외동포 거주 중국-미국-일본-독립국가연합 등 순으로 많아
- 2009년 감소세에서 반전, 다시 700만 시대 진입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동포 36,295명

외교통상부가 지난 달 8월 29일 '2011년 재외동포현황'을 발간하고 재외동포 수가 다시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2011년 현재 재외동포 수를 726만8,771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9년 682만 2,606명 보다 6.54%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재외동포 인구는 1971년 70만 명 선에서 76년과 86년에 각각 100만 명과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2007년에는 704만 4,716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682만2,606명으로 한 차례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가장 많은 270만 4,994명, 미국 217만 6,998명, 일본 90만 4,806명, 독립국가연합 53만 5,679명 등 순으로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외동포의 61%인 447만 2747명은 거주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주권자(114만 8891명)와 장·단기 체류자(131만 7554명), 유학생(32만 9579명) 등 재외동포 선거권을 가진 인구는 전체의 39% 수준인 279만 962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는 36,29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재외국민은 36,039명으로 영주권자 211명, 일반체류자 35,549명, 유학생 279명이 이에 포함되며 외국국적을 소유한 사람도 256명이나 된다. 또한 이들 중 대다수 31,224명이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자료, 한인회 등 동포단체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의 민원 처리기록, 직접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로써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수립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외교통상부가 격년으로 발간하는 자료이다. 홀수년도 하반기에 업데이트된다.

※ 홈페이지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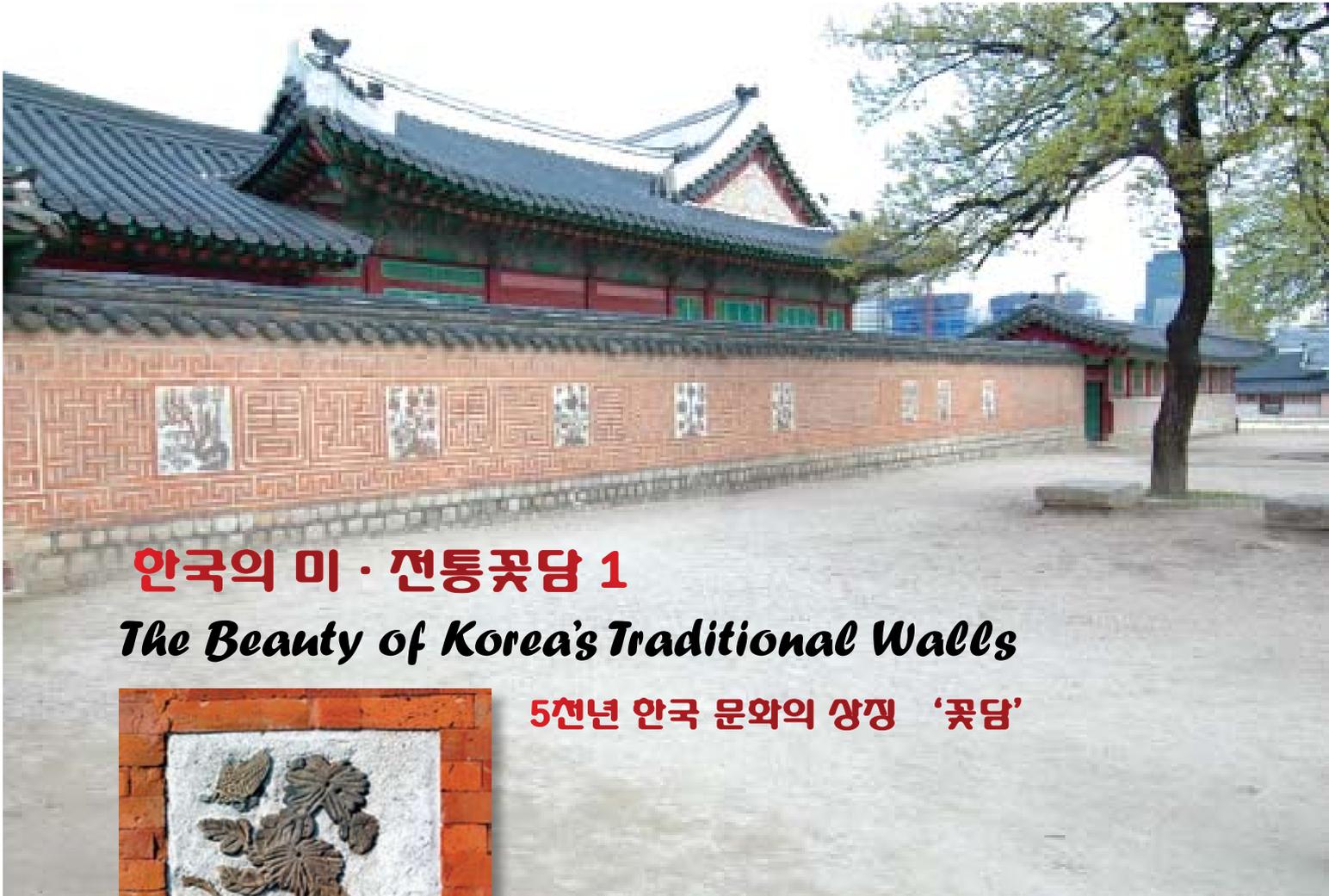
여행/해외체류→재외동포정책 및 현황

사진과 글 **엄종한** 한인뉴스편집위원



추수

언제 오셨는지 모르게 가을이 되었습니다. 농부의 풍성한 마음은 어느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올해도 가을들판은 풍성한 추수의 기쁨으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2011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수하셨는지요?



한국의 미 · 전통꽃담 1

The Beauty of Korea's Traditional Walls

5천년 한국 문화의 상징 '꽃담'



올해 추석특집으로 SBS TV에서 방영되었던 '한국의 미-전통꽃담'을 새전북일보의 이종근 부장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원고와 자료를 직접 보내 주었습니다. 감사드리며, 2회에 나누어 연재합니다.

저자와 함께 꽃담길을 걸으며, 한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멋을 감상하는 넉넉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부장은 꽃담 관련,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다큐멘터리 부문 선정(지상파 방송 및 수출용 2부작,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 문화원형 창작소재개발사업 '한국 전통의 담장' 선정(한국콘텐츠진흥원), 해안발전 정책 공모 최우수상(국토해양부), 여가 활용 공모 최우수상(문화관광부), 세종시 한국성 구현 아이디어 최우수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문화재청)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반만년을 이어온 한국의 꽃담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순천 낙안읍성, 성주 한개마을, 전주 한옥마을 작은 안마당 장독대에 석양빛 서서히 내리고 있다. 붉은 햇살은 처마에 걸터앉았다가 한나절 잘 쉬었다 간다고 인사를 한다. 대금소리와 함께 타닥타닥 불 지피우는 소리가 들리면 목청 큰 소리꾼의 함성 잔잔해지면서 밤은 이내 더욱 깊어지고 그윽한 정취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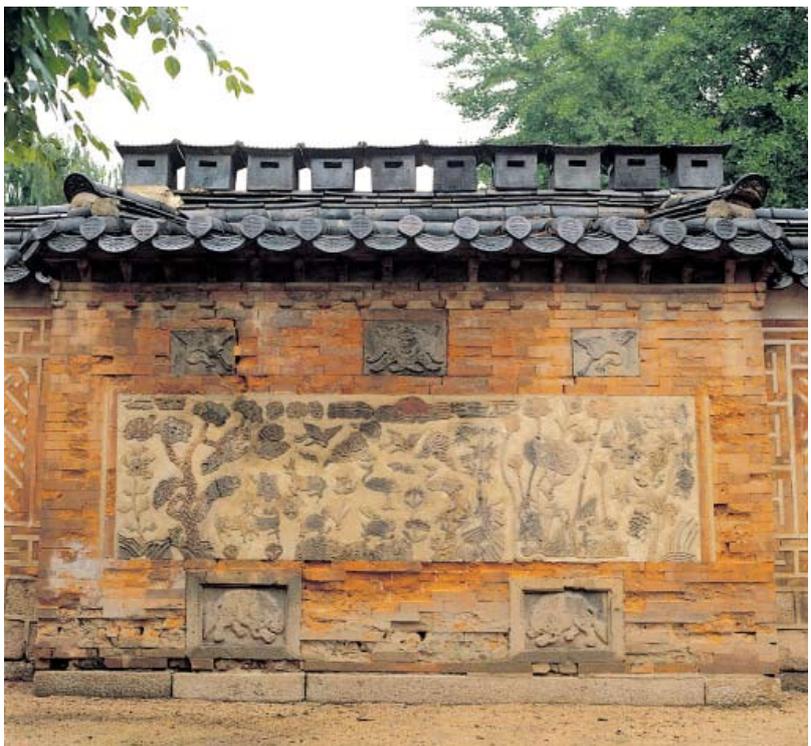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들 마을의 이른 아침. 달그락 달그락 그릇을 옮기는 소리와 인근 향교와 서원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게으른 사람들의 늦잠을 막는 휘방꾼으로 다가온다.

꽃담장을 한 후 마알간 하늘 아래, 뜰 안에 심어 놓은 감나무, 은행나무 등이 들여다보이는 틈새로 꽃담을 보는 즐거움이 더해졌으니, 공자처럼 ‘지극히 아름답고 또 더 이상 더할 것 없어 좋다’는 희열 고스란히 담아본다. 흙빛처럼 속살거리며 영롱한 꽃담으로 노닐 뒤, 기꺼이 낙산사 원장처럼 ‘햇님, 달님, 별님’ 음덕 마음속에 차분히 새겨 놓고 최명희의 ‘혼불’과 춘향전의 춘향이 되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옛 사람들을 생각해본다.

그들은 흙담을 쌓되 흙이 주저앉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돌을 박거나 때론 깨진 기와를 섞어 무늬를 넣어 (전통)꽃담을 만들기도 했다. 금상첨화로 길상적인 의미를 지닌 글자 또는 꽃, 동물 등의 무늬를 넣어 주변의 건축이나 자연과의 조화된 삶을 염원했다. 현재 대한민국엔 보물 제811호 경북궁 아미산의 굴뚝, 보물 제810호 경북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 보물 제350호 대구 도동서원 강당 사당부 장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4호 낙산사 원장 등 4종의 꽃담만이 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여타의 꽃담은 기와 및 전돌로 만든 까닭에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아 세인의 관심 밖으로 점차 밀려나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하지만 길상적인 의미를 지닌 글자나 꽃, 동물 등 무늬를 넣어

주변의 건축과 자연의 조화를 꾀한 선조들의 삶과 염원이 담긴 꽃담은 세계적으로도 양반, 백성, 궁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드문 소재인 만큼 세계에 널리 알려도 손색이 없는, 흙으로 만든 마지막 문화유산이다.

경복궁 교태전 뒤편 아미산 동산을 연결시킨 꽃담은 우아하면서 단아한 국모의 성품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창덕궁 낙선재 후원의 꽃담은 흥선대원군의 목란도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듯 정갈한 예술성을 뽐낸다. 그러나 덕수궁 꽃담 사이로 보이는 자그마한 유현문은 조선조가 비운의 역사, 설움의 역사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눈치다. 송광사 침계루 통풍구의 네 장의 꽃 이파리는 붉은 나무 기둥과 푸른 창문과 노란 벽면이 주변의 초록 빛깔과 어우러지면서 수려한 풍광이 그만이지만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과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아는’ 세상살이를 일러준다. 운강고택 화방벽은 ‘길’자와 꽃잎 모양의 아기자기한 무늬가 서로 만나면서 상생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으며,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화방벽의 ‘부’자와 ‘귀’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부딪침을 다스리되 유물적인 부귀를 멀리하는 자타일체의 경지를 추구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무시무종(無始無終)’,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장수 무늬 꽃담-



화려하되 야하지 않고 은근한 멋을 풍기는 삶의 꽃밭으로 슬며시 다가온다. 오늘도 ‘슬퍼하되 비탄에 빠지지 않는 말고, 즐거워도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 는 말을 반추하듯 영원히 시들 줄을 모르며 방실방실 사람들을 맞고 있다.

꽃담은 담백하고 청아하며 깔끔하며 순박한 한국의 멋, 아름다움 그 자체- 깊은 밤 꽃담 저 멀리, 꽃살에 붙은 창호지 틈새로 은은한 달빛이라도 새어들 양이면 세속의 욕망은 어느 새 소리 없이 흩어지고 금방이라도 해탈의 문이 열리는 듯 한 환상 속으로 빠져든다. 각박한 회색 도시를 떠나 내 마음의 꽃담 여행, 곳곳마다 선조들의 인품과 향기가 절로 느껴졌다. 물질과 효율, 경쟁과 속도로 규정되는 현대에서 찬찬히 꽃담을 바라보면서 느낌의 미학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음은 너무나도 당연하질 않는가. 사무치는 그리움에 사로잡히는 지금, 그 많던 꽃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쉬움이 교차된다. 봄이 오면 담쟁이덩굴이 휘감고 가을이 오면 빨간 홍시와 낙엽으로 단장하던 나지막한 꽃담은 시멘트 담과 아파트에 밀려 하나 들썩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삶이 더 추락하고 황폐해지기 전, 꽃담 닮은 향기로운 삶이고 싶다. 문득,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욕심을 버리며 산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나그네는 늘 꽃담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반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배우면서 희망을 얘기하며, 한 박자 건너가는 마음을 통해 가슴에 쌓인 원한과 저린 기억마저도 저 멀리 몰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꽃담은 향토적인 서정이 고스란히 담긴 한편의 서정시요, 설치미술로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낸 그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향기로운 삶을 닮은 한국의 전통 꽃담 그 안에서 오늘도 소통

과 나눔의 삶을, 그리고 긍정의 철학을 배운다. 이 꽃담, 저 꽃담은 ‘버림은 소유의 끝이 아닌, 무소유의 절정’ 이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인다.

▶ 왜 대한민국의 꽃담인가

여러 무늬를 놓아 독특한 치장을 한 벽체나 굴뚝, 합각, 담장 등을 모두 합쳐 부르는 게 대한민국의 꽃담(전통담장, 굴뚝, 합각)이다. 세계적으로도 천민과 백성, 양반, 그리고 황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5천년의 스펙트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드문 소재인 ‘(우리동네)꽃담’ 을 13년 동안 틈만 나면 걷고 있다. 현재 경북궁 아미산 굴뚝(보물 제 811호), 십장생 굴뚝(보물 제810호), 도동서원 강당사당부 장원(보물 제350호), 낙산사 원장(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4호) 등 단 4종의 꽃담이 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을 뿐이며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서서히 밀려나면서 자취를 잃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흙으로 만든 마지막 문화재요, 문화유산이 꽃담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음식, 한옥, 기와, 도자기, 염색, 나전칠기, 목기 등의 소재는 식생활 정도로 세계에 알려졌지만 꽃담은 아직까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때문에 꽃담은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한국 소개 캘린더는 물론 다큐멘터리, 간행물, 소설,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의 부재료 및 주재료의 소재로, OSMU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꽃담은 분명히 세계 시장에 내놓을만한 콘텐츠다. 한국의 꽃담 가운데, 보기 힘든 전국의 꽃담은 문학, 역사, 철학, 건축, 미술, 사상 등 내용을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찾아보고 있는 까닭이다.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가 꽃담(국어사전에는 화초花草담으로 기술)이요, 문화재 지정이 거의 드



물어 관심 밖으로 밀려 난 게 바로 꽃담이므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소재 자체가 희소성을 갖추고 있음이요, 한국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흙으로 만든 문화유산이므로 녹색 생활과 직접 관련돼 세계 속의 녹색 강국을 만들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작용할 것이다. 꽃담에는 수복강령, 만수무강 등 좋은 글귀와 뇌문, 만자만문양 등 전통 문양 등이 그래도 남아 있어 국민정서에도 좋고 관광상품으로 별도로 개발한다면 반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그다지 크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는 꼭 기억해야 할 문화유산이 꽃담이다.

▶ 의장적 특징으로 현존하는 꽃담과 그 무늬

· 의장적 특징으로 현존하는 꽃담

꽃담을 살펴보면 그 의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서민들의 담에서도 기와 깨진 조각이나 여러 형상의 돌로 치장했으며 궁궐이나 상류층의 고급스럽게 쌓아 올린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담은 단순히 대지의 경계 혹은 방어를 목적으로 쌓아 올려 지지 않았으며 마당은 실내 공간과

같은 역할을 하며, 담은 벽에 해당하여 늘 바라보는 자연의 일부였기 때문에 벽에 대한 치장을 통하여 높은 우리의 조형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각담(牆)의 의장적 특징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막돌의 반복 막생긴 돌 그 자체를 아무런 가공 없이 쌓아 그 자체를 시각적 요소로 하여 획일적으로 반복시킨 것으로, 막돌의 크기로 변화를 주게 된다. 이때 층을 맞추어 쌓는 바른층쌓기와 층을 맞추지 않는 허튼층쌓기가 있다. 사고석의 반복동일 크기의 사고석을 반복시키기 때문에 그 어느담(牆)보다 강한 통일성을 가진다. 정사각형 돌들을 막힌 줄눈으로 바른층쌓기 하는 것으로 궁궐과 중, 상류주택에서 널리 쓰였다. 토대(土臺) 부분에 사고석 대신 다듬은 돌(長臺石)을 쌓고, 그 위에 사고석을 쌓아 변화를 얻기도 한다.

벽돌의 반복동일 크기의 벽돌을 획일적으로 쌓는 방법이다. 강한 통일성은 있으나 변화는 없다. 때로 무늬를 맞추어 벽돌을 일부 십자형으로 빼냄으로써 변화를 얻는다. 이 수법은 영룡담(玲瓏牆)이라고 불리며 상류 주택에서 채택되고 있다.

돌과 기와편의 반복중력이 크게 작용하는 담(牆) 아래 부분에는 돌로, 윗부분에는 흙 한 켠, 기와 한 켠을 세우거나 눕혀서 흙을 섞어 쌓는 방법으로 재질과 크기의 변화로 지방의 주택이나 사찰의 담(牆)에 많이 쓰인다. 독특한 조형성을 가진 해인사의 토석담에 사용된 기와는 깨진 것을 이용하여 이미 사용되었던 폐품을 적절히 이용하여 아름다운 담장을 만들어낸 흥미 있는 담이다.

돌과 짚의 반복지푸라기나 새끼줄을 잘라 돌과 함께 쌓는 방법이다. 크기나 재질의 변화로 흥미를 일으킨다. 지방의 주택에 많이 쓰였다. 벽돌, 돌, 등근 돌의 반복하여 아랫부분을 사고석으로 윗부





분을 벽돌로 쌓고 벽돌 중간 중간에 둥근 돌(원형으로 가공한 돌)을 끼워 놓는 방법이다. 재질의 변화와 둥근 돌의 배치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궁궐 건축의 담(牆)에 이 양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낙산사의 담은 황토와 벽돌로 켜를 이어 쌓아 올리는 사이에 둥근 돌로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의미로 우주의 운행이 그 안에 있고 행복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화초담(花草牆), 화문담(花紋牆) 상류주택, 궁궐 건축, 관아건축 등의 담(牆)에서는 돌, 벽돌, 기와편 등으로 쌓으면서 여러 문채를 구성 장식한다. 장식적인 담(牆)을 화초담(花草牆), 화문담(花紋牆)이라 하며 통틀어 꽃담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용되는 무늬는 여러 종류가 있다.

· 꽃담에 이용되는 무늬

문자무늬(文字紋) ; 길상문자(吉祥文字)인 수복(壽福), 강녕(康寧), 부귀(富貴), 다남(多男), 만수(萬壽), 쌍희(囍) 등을 벽돌로 무늬를 놓아 쌓는 것이다. 무늬는 대개 벽돌로 구성하거나 때로는 석회줄눈으로 띄를 두른 후 그 뒤에 청색이나 적색으로 칠을 하게 된다. 해남 대흥사의 외담으로 강가에 흔히 있는 돌을 크기에 따라 쌓아 올리고 기와로 직선의 구획을 한 뒤, 부(富)자를 새긴 길상무늬 담(牆)이다.

동물무늬(動物紋) ; 상서로운 동물로 생각하는 사슴이나 길조(吉鳥)로 생각하는 학 같은 조류들을 무늬로 하여 장식한다. 경복궁 자경전 동쪽 전축문의 한 부분으로 봉황새 부조 도판이 남아있다.

식물문(植物紋) ; 국화, 매화, 난초와 같은 꽃이나

대나무, 소나무, 석류나무 등을 무늬로 삼는 경우로서 화초담(花草牆)이라 부르게 되는데, 꼭 식물문 만이 아니고 동물 무늬를 섞어서 구성하여도 화초담(花草牆)이라 부른다. 화초담에 나타나는 식물은 동물무늬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기원을 담고 있다. 매화는 여인의 정절에 비견되기도 하며, 포도무늬나, 석류문은 다산(多産)을 의미한다. 또, 바람에 날리는 대나무는 선비의 굳은 절개를 나타낸다.

기하문(幾何紋) ; 기하학적 모양으로 육각형의 귀갑문(龜甲文), 완자문, 아자문(亞字文), 영룡문 등과 같은 기하학적인 문채(文彩)로 장식한다. 낙산재 담(樂善齋牆)으로 완자문과 구갑문의 복합 구성과 고저(高低)차에 대한 처리가 뛰어나다.

십장생문(十長生紋) ; 동물과 식물무늬를 혼합한 것으로 장생불사(長生不死)한다고 생각하는 열가지를 문채화(文彩化)한 것으로 해, 산, 물, 돌, 구름, 술, 학, 불로초, 거북, 사슴들이 바로 십장생물(十長生物)로 이를 담(牆)에 장식한 것이다. 이미 고구려 고분 벽화에 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십장생 무늬의 역사는 상당히 우수하다.



이종근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장



전국문화의집협회 부회장, 전주시문화의집 관장, 한·프랑스 국제컨퍼런스 대한민국 대표를 역임했으며 한국프레스센터와 한국언론재단, 방일영문화재단, 관훈클럽 기획 출판 대상, 제5회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옛집과 꽃담' 등 10권이 있다.



국경일만찬

개천절 · 국군의 날 기념만찬에서 양국의 깊은 우호관계 재확인

- 올해는 양국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해가 될 것 -



주인니한국대사관이 국경일만찬을 개최했다. 지난 30일 자카르타 그랜드 하이얏호텔에서 열린 만찬은 인도네시아 전,현직 정부 요인들과 자카르타 주재 외교사절, 한인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깊은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만찬에는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전 대통령과, 유습 깔라 전 부통령,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 M.S. 히다얏 산업장관, 뿌르노모 유스기안 또도로 국방장관, 마리 엘까 빵에스뚜 무역장관, 줄끼플리 하산 산림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영선 대사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며 한인사회는 최대 외국인공동체로 성장할 정도로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참여와 국방 협력 강화 등으로 양국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해가 될 것이다”라며 내빈들을 환영했다.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은 학교 다닐 때는 태권도를 좋아했고 이젠 한국인이 많아져 불고기를 매일 먹을 수 있어 좋다. 아내는 한국드라마를 보고 아이들은 K-팝을 듣는다고 자신이 한국 마니아임을 밝힌 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7위 외국인투자국이며,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에 한국이 주파트너로 적극 참여한다면 2위 투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발리가 한국인들에게 신희여행지로 인기가 높아 장차 한국에 발리산(made in Bali) 한국인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식전행사로 펼쳐진 기념공연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은 인니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예를 음악과 스토리에 담아 펼쳐 보였으며, 타악퍼포먼스그룹 ‘드럼캣(DrumCat)은 자신들이 편곡한 퓨전음악을ダイナミック하고 폭발적인 율동으로 연주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저력을 알리며 감동을 자아냈다.



[사진]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개천절 · 국군의 날 만찬’에서 주요 인사들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승은호 한인회 회장, M.S. 히다얏 산업장관, 김영선 대사, 유습 깔라 전 부통령,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 뿌르노모 유스기안 또도로 국방장관, 줄끼플리 하산 산림장관, 마리 엘까 빵에스뚜 무역장관.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2011 한국문화주간

**연지인과 안인동포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조화
안국문화원, 스나안실내테니스장, 간다리아몰 등에서 감동을 나누다**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문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한-인니 간의 우정과 협력을 위해 이런 문화행사를 갖게 되었다. 한국문화를 즐기고 느끼고 체험해보는데 이 행사의 의의가 있다. 한국인만의 축제가 아닌 인니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기 바란다.” - 김영선 대사, 행사현장의 기자회견에서 -

‘2011 한국주간(Korea week)’ 축제가 자카르타에서(9월 27일부터 10월 4일) 개최되었다. 한-인니 관계가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심도 있게 발전되는 시점에서 올해의 축제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미가 큰 축제였다.

축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렸다. 대사배전국주니어태권도대회 개막(스나안실내테니스장)을 시작으로 문인화전시회, 한식페스티벌, 드럼셋 공연, 한류가수 공연, K-POP 경연대회, 한국우수영화제 등 굵직한 행사들과 태권도시범대회, 어린이합창단, 방패연만들기, 바틱실습, 앙플롱 공연, 제기차기, 한복 입고 사진 찍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겹쳐지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에서 집중적으로 열려 축제의 의의를 잘 살려냈다는 평이다.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시범 <간다리아몰 9월28일-10월 1일>

27일 개막식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단장 나일한)이 우렁찬 기합과 고난도 무예솜씨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세계수준이라 할만하다. 영화적 상상력마저 불러일으키는 동작과 음악으로 짜인 무예시범에 대해 시범단원인 김영찬(한국체대 4)은 “해외공연 때에는 방문국의 음악을 배경으로 만든 무예를 시범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시범이 끝나자 인도네시아군악단과 한바패가 공연을 펼쳐 대회의 흥을 한껏 돋우었다.

대사배 전국 주니어 태권도대회 <9월 27일-29일, 스나안실내테니스장>

김영선 대사, 안디 말라랑에 청년체육장관, 리따 수보워 인니체육회(KONI) 회장 및 한.인도네시아 관계자와 교민 등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인도네시아 전국 33개 주에서 참석한 900여 명의 선수들이 공중격파와 개인겨루기 등 5체급 경기를 치렀다.



. 미니인터뷰 - 세계태권도연맹 나일한 단장

- 이번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주간 축제에는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었나요.

대사님이 초청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태권도시범단이 왔었지만 그때는 다른 팀이었고, 세계태권도연맹으로서는 처음 왔습니다.



-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세계태권도연맹 회원은 3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니에 온 단원은 그 중 17명입니다. 단원들은 음악과 파워풀한 안무로 세계무대를 위해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축제에 참가하신 소감은 요.

한국의 태권도를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태권도로 인해 한가족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교민들의 열성과 후원을 보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단한 이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오겠습니다.



한국의 정신, 문인화 26 전 <9월 29일-10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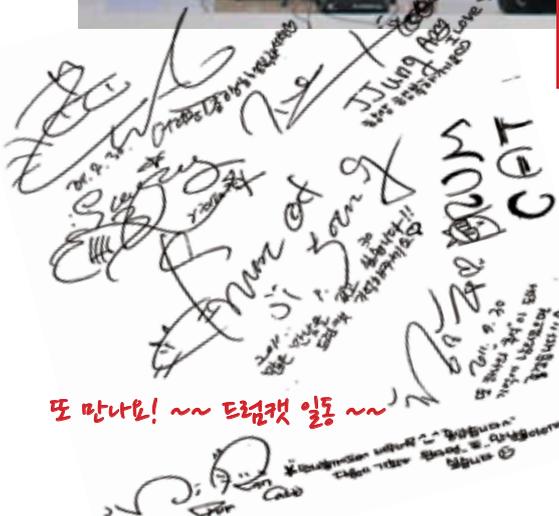
한국문화원 다목적홀. 우리의 문인화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멀리, 깊이, 정확히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이 전시회에는 시백 안중중(詩伯 安淙重) 선생의 '달밤(月夜)'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 문인화가의 작품 26점이 전시되어 한껏 들뜬 축제의 분위기를 맑고 고요한 '靜'으로 우러냈다.

문인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출품한 인재 손인식(자카르타 인니서예연구재단) 선생은 "떡빛은 침묵의 아우성이다. 붓질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떡의 흔적에서는, 붓질에서는 거짓도 쉬이 드러나고 게으름도 여실히 드러난다. 건조한 생각도 잡념도 감출수가 없다. 실제이지만 지워야 할 때가 있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여백으로 두어야 할 때도 있다. 참다운 침묵은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필묵의 가르침은 참다운 침묵이다." 라고 화제를 대신했다.



드럼캣 공연 <3회, 간다리아몰>

박지영(리더), 민선(바이올린), 청연, 미란, 효정, 정아 등 6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인니를 방문한 드럼캣의 공연은 첫 방문에 이어 드럼캣 선풍을 몰고 왔다. 드럼캣의 음악이 강렬한 이유는 온몸으로 복을 두드리기 때문일 터인데, 그 앞에서 관중은 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뜨거운 소리를 듣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표현을 잘 못하는 관객까지 결국에는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 에너지를 다한다. 관객이 감정을 표현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효정 씨의 말에 대단한 자존감이 담겨있다.



또 만나요! ~ 드럼캣 일동 ~

**방패연만들기, 바틱실습
<9월 30일, 간다리아몰>**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마련한 이 행사는 한-인니 문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느끼고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방패연은 만들며 인도네시아 연과 차이점을 알게 된 현지인 참가자들은 다 만든 연에 도우미들이 가르쳐준 한글을 써넣으며 상기된 표정들이었다. 바틱실습 또한 한글문양을



찍은 것이어서 이것이 무슨 글이냐고 물으며 재미있어 했다.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행사를 준비하며 한글이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글자인지 새삼 깨달았다” 며 인니인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장적인 한국문화체험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이 한국의 연을 설명하고 있다

한식페스티벌 <10월 1일, 간다리아몰>

인도네시아인으로 구성된 10개 팀이 한식경연대회에서 불고기와 잡채로 실력을 겨뤘다. 대회가 끝난 후 1층에 마련된 공연무대에서 한식페스티벌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개막식에는 김영선 대사 부부는 물론 요시노리 일본 대사 부부와 린다 아말리아 사리 여성부장관, 아굼 구멀라르 전 교통장관이 참석하여 한식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김영선 대사와 린다 여성부장관은 “모든 재료를 섞어 조화를 이루는 비빔밥처럼 한-인니도 더욱 굳건한 친구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다.

이 행사를 위해 초대된 한복진(요리연구가) 교수는 “한국인은 먹는 것이 약이라 생각했다. 아프면 약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찾았다. 한국음식에는 다섯 가지 색과 맛이 있다” 고 설명하며 “발효음식인 한국의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뽑힐 정도로 비타민과 많은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고 불고기, 비빔밥, 삼계탕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을 소개했다.

이어서 200인분 비빔밥을 즉석에서 비벼 행사장의 한-인니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나누는 이벤트로 공감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식 특강을 하고 있는 한복진 교수



영화상영 <9월 28일-10월 4일 간다리아몰 시네 21>

1일 3~4회 상영, 관람료 무료, 김현기 문화원장은 “한국 영화제는 영화를 통한 한류의 재점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 환기 및 한국영화 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고 말하며 *김종욱 찾기 *하모니 *포화 속으로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맨발의 꿈 *불꽃처럼 나비처럼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 놈 등 7편의 영화는 현지인들이 시청한 후 반응이 좋은 영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케이팝 경연대회 <9월 28-29일, 간다리아몰>

이들간의 본선을 통해 선발된 10개 팀이 결승전에서 한류가수와 합동공연을 가졌다. 우승팀은 한국행 왕복항공권을 받는다.



한류가수 공연 <10월 2일-3일>

한류연예인 빅콘서트, 신화 이선호 이준기 이동건 최진 박효신 유승찬 정재일 <사진 : 육지민 JIKS 10>



다양한 동포참여 행사 <서잔 : 안미경 한인뉴스리포터>

동포 참여행사, 기타 행사 <매일, 간다리아몰> UI, 반동한사모, 따나메라합창단, 웨슬리중창단, 색소폰, 어린이합창단, 가야금, 한바패, 제기차기, 한복 입고 사진 찍기, 여수엑스포 홍보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져 현지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함께 즐기는 진정한 축제무대였다.

본지는 일부 행사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참여소감을 묻는 간단한 질문을 했다. ‘공연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똥꾸 리사 사호니자, 21세), 어린이합창단과 태권도시범 너무 멋지다(차은너, 42세),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안미경, 여, 44세), 이런 행사가 반동에도 있으면 좋겠다(조강별, 15세, 한사모회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김태화, 36세), 한국을 홍보하는 소중한 행사다(정희주, 35세), 두 나라가 함께하는 기분이 좋다(엠마, 20), 연만들기가 짱이었다(무명)’ 등 긍정적인 반응과 홍보부족과 행사 스케일에 비해 무대가 좁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쉽다. 한국 상품을 살 수 있는 바자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는 지적이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민간외교관이 된 듯 한 느낌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가까워지면 좋겠다. 내년에도 꼭 다시 열렸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말했다.

‘2011 한국주간’ 축제의 특징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태권도대회, K-POP, 한식경연대회, 바틱실습, 그밖에 양국이 함께 한 많은 무대들에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고 보다 적극적인 나눔과 공감을 열어가는 한마당이었던다는 점이다.

축제는 끝났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끝’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과 동의어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김영선 대사는 9월 19일(월) 파우지 보워(Dr. Ing. H FAUZI BOWO) 자카르타 주지사를 예방했다. 김 대사는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과 자카르타의 교류, 친선관계가 증진되기 바란다는 서두에 이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한인 4-5만이 살고 있으며 그중에는 성공한 기업인도 있고,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그들에게) 인니 지역의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한인사회가 되기를 당부하고 있다” 고 말하며 한인사회가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카르타 정도기념사업, 모나스 페스티벌 등과 같은 축제를 미리 알려주면 한인사회도 적극 참

여하여 양국 문화교류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9월 말에 있을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소개했다. 이 문화축제는 한인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태권도, 한국음식만들기, K-POP 등 다양하게 기획되었다고 설명한 후, 9월 30일에 하얏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국경일 리셉션에 주지사를 초청했다.

이날의 예방에는 한인회 승은호 회장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정무웅 재단이사장, 한인회 조규철 부회장이 동석하여 한인사회와 양국의 문화교류, 자카르타 시내의 교통문제 등 1시간가량 담화를 나누었다.

■ 김영선 대사, DKI JAKARTA 주지사 예방



■ UI 한국어학과 방문

9월 20일, 김영선 대사는 인도네시아대학교(UI)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의 명문인 UI에 한국어학과가 있어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한 김 대사는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젊은 세대를 보아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 특히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UI 학생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이들이 졸업 후에도 한국과 연계될 수 있

는 방법을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곳을 가보셨는지, 어릴 때부터 대사님이 되고 싶었는지 등을 한국말로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답을 해주며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아 마치 아나운서 같다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과의 대화와 오찬을 마친 김 대사는 구밀라르(Gumilar R. Somantri) 총장을 예방하여 양국 교육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인니한국대사관 국정감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반은 29일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는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국정감사반장),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원혜영 민주당 의원, 최재성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영선 대사와 대사관 직원 및 언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 증인선서를 한 김영선 대사는 대사관 현황, 정무, 경제통상, 문화 등 업무현황을 보고한 후, 재건축 대사관과 별관 예산 확보 문제, 대 아세안 외교 강화를 위한 아세안 상주 대표부를 자카르타에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최재성 의원은 T-50 수출 계약과 관련 “처음부터 돈을 많이 남기고 파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과 목표달성에 쫓겨서 턱없이 어려운 조건으로 수출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T-50 16대를 18개월 안에 납품이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영 안타라통신과 일간 인도네시아투데이 등이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 CN-235 수송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수입하는 ‘바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 확인과 이면 계약 존재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사실과 다르다. 인도네시아로서도 한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



각된다”며 “이면 계약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원혜영 의원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FTA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한류 확산과 효율적인 한글 교육 방안 및 한국으로 파견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선발에 대해 질의했다. 이상득 의원은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현지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T-50 수출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수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근 의원은 한국문화원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활동과 한국학과를 졸업한 인니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관계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 이충호 고충민원심의관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기관 방문과 현지 재외국민 이동신문고 상담을 실시했다. 첫 날 워크숍에 이어 권익위, 인니옴부즈만, 대사관과 한인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9(목) 오후 2시

한-인니 국민권익위원회, 재외국민 이동신문고 상담

부터 세 시간 동안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이동신문고를 개최하여 2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지난 2월에 있었던 고충상담 2건 중 1건은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1건은 아직 처리중이라고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민원상담 후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에 대해, 민원인이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에 ▶

▶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아직 홍보와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루빨리 인니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니옴부즈만에 직접 민원제기가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한국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중재신청을 하거나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 공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권익위 이우철 국제교류담당관은 “인니옴부즈만의 홍보를 위하여 앞으로 현지 언론과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겠다” 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MOU를 체결하여 매년 상호방문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함으로써 현지적응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업을 벌여 왔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상대국가와의 상호 고충민원처리에 관련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mbudsman Republik Indonesia :
www.ombudsman.go.id
Jl. HR Rasuna Sahid Kav. C-19
Kuningan, Jakarta Selatan 12920
(021) 5296 0894 - 95



웹사이트 구축, 스마트폰 연동.. 실시간 뉴스공급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 전문 웹사이트인 데일리인도네시아(www.dailyindonesia.co.kr)가 시험가동을 마치고 24일 공식 출범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의 출범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버전을 통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게 됐다.

유료신문인 이 매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기존 유료 독자에 대한 메일링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시시각각 제공한다. 또한 일반 웹사이트 방문자에게도 주요 뉴스는 물론 필요한 정보 및 한인소식 등 일부 뉴스를 무료로 공개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와 현지 한인사

회의 소식 등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유일한 매체다.

12년 동안 뉴스제작에 외길을 걸어온 데일리인도네시아는 지난 1999년 4월 현지 한인들의 알권리 충족과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피드뉴스’ 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 전문 뉴스레터로 출발, 2010년 1월 사명을 ‘데일리코리아’ 로 변경했으며 이번에 데일리인도네시아로 바꾸고 제2의 창업을 알렸다.

한국의 우수 언론사 출신의 제작진으로 재편

이 신문은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뉴스제작을 추구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연예, 스포츠,레저, 과학 정보, 사진과 영상 등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뉴스를 빠짐 없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의 우수 언론사 경력 출신으로 구성된 데일리인도네시아 제작진은 한국인의 시각에 맞는 뉴스를 제작, 한국과 현지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정부와 민간 기관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한글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발행인은 “데일리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은 물론,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인도네시아를 찾고자 하는 한국인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포털사이트로 발전해 나갈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인회-국정감사반 간담회

29일, 한인회(회장 승은호)는 국정감사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박종근(한나라당), 이상득(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최재성(민주당) 의원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인니 한인사회의 기업활동과 교민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재외국민투표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담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광현 민주평통서남아지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태권도는 지난 88 서울올림픽과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참가한 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과거에는 한번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올림픽종목을 유지했지만, IOC가 2005년부

터 모든 올림픽 종목을 매 4년 마다 평가해 7년 후에 치러지는 올림픽 공식프로그램을 확정하기로 선정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IOC는 2013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에서 2020년 올림픽 프로그램에 들어갈 종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IOC는 2012년 4월 세계태권도연맹을 포함한 모든 국제스포츠연맹에 질문서를 발송하고, 연맹들은 9월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IOC는 올림픽 프로그램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3년 2월 집행위원회를 열어, 2012년 런던올림픽 26개 종목 중 하나를 제외한 25개 핵심 종목을 결정한다. IOC의 올림픽 종목 주요 평가 항목에는 연맹 가맹 회원국 수, 올림픽 메달 분포, 방송 노출, 올림픽 입장권 판매, 스폰서 수 및 금액 등이 들어있다.



<<< 한인회는(회장 승은호)는 2011 한국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한 드림갯 공연단 일행을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하며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한인뉴스(발행인 조규철)는 2011 한국 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과 함께 만찬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자유와 평화의 등대지기, 자유총연맹인니지부

- 창립1주년기념식
- 부산광역시지부와 자매결연식



9월 21일, 자유총연맹인니지부(이하 자총련)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자카르타에 있는 만다린오리엔탈호텔에서 열렸다.

김영선 주인니대사와 승은호 한인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볼륨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동희 회장은 “지난 1년은 한인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 속에 열과 성의로 임한 한 해였으나 한편으론 부족하고 미흡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고 인사말을 하며 한인사회 안에서 아직도 이념적 보수 관변단체로 보는 시각이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선 대사, 승은호 한인회장, 자매결연식을 맺기 위해 인니를 방문한 김성태 부산광역시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자총련 회원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남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며 인니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부탁했다.

자총련은 지난해 9월 6일에 창립되어 만 1년 동안 교민친선축구대회, 독도사진전, 강연회와 웅변대회 등 호국정신과 불우이웃돕기를 통해 한-인니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날의 행사는 부산광역시지부와 자매결연식, 새 임원진에게 임명장 수여, 지회기 증정 등의 순서로 이어지며 자총련 일 년의 결산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마지막 순서인 자총련 주최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식에서 배현민(직스 6)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7명의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누리며, ‘나라사랑, 한마음’의 의지를 다졌다.

법무법인 (유)에이펙스, 인니에서 업무 개시



법무법인 APEX인도네시아(대표변호사 채정석)가 지난 9월 22일, 자카르타에 있는 리츠칼튼퍼시픽호텔에서 김영선 주인니대사와 한인회, 옥타월드, 기업과 금융계의 한국과 인니 측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기념식을 갖고 자카르타에서 첫 업무를 개시했다.

법무법인 APEX인도네시아(이하 에이펙스)의 진출은 한국로펌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법률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에이펙스는 최근 자카르타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인도네시아법률회사 프리다 술리스티야니 앤드 파트너스(FARIDA SULISTYANI & PARTNERS)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에이펙스 인도네시아’ 설립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이펙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프리다 술리스티야니 앤드 파트너스는 광산라이센스 관련 분쟁은 물론 기업과 민·형사 등의 송무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지 유력로펌이다.

법무법인 (유)에이펙스는 송무와 기업법무에 강점이 있던 법무법인 렉스, 건설부동산과 기업법무에 강점이 있던 법무법인 우현지산, 해외투자 와 금융에 강점이 있던 법무법인 세화가 하나로

합병한 국내 9위의 대형종합로펌이다. 이번에 자카르타에 사무실을 연 APEX인도네시아는 채정석 대표변호사, 민흥기 변호사, 최철 변호사, 차지훈 변호사, 이해왕 변호사 등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파트너급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정석 대표는 “인도네시아 교민들 대부분은 성공한 기업인이나 금융계 종사자들이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교민들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높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 APEX라는 외국이름을 지은 것도 창립 때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설립했기 때문이다. Asian Premier Experts (아시아최고의전문가들)임을 표방하면서, 금융/증권,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해외투자 뿐만 아니라 소송/중재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법률문화 선진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인니진출의 첫 포부를 밝혔다.



미원인도네시아, 밥퍼에피센터에 무료급식 봉사활동 차량지원



미원인도네시아 영업법인장 김금배상무가 밥퍼해피센터 최원금선교사에게 봉사활동차량과 열쇠를 전달하고 있다.

대 상그룹 미원인도네시아(법인장 김두련)는 9월 15일 인도네시아 빈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밥퍼해피센터(최원금 선교사)’에 무료급식 봉사활동차량을 지원했다.

미원인도네시아는 밥퍼해피센터와의 협약식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밥퍼해피센터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밥퍼해피센터의 최원금 선교사 역시 봉사활동차량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밥퍼해피센터는 지난 2008년 11월 개원 이후 기아대책의 후원으로 한인 종교단체, 로터리클

럽,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판중쁘리옥역사 주변의 빈민들과 빈민학교 등에 매주 3회 1,000여 명이 넘는 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사랑의 전화(0812-1004-999) 운동본부와 더불어 한인 및 다문화가정에 물품지원 및 포장/배송 등의 봉사활동과 사업장 주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지급과 전력공급, 교육용컴퓨터 기증과 의류지급사업, Hari Raya 및 Idul Adha 등의 종교축일기념 구호물품 지원 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원인도네시아는 중부자와 족자 지진 및 머라삐 화산폭발, 수마트라 아찌의 쓰나미 및 빠당지진 등 국가재난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및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한국자수의 아름다움 전

“텔레비전 사극에서부터 전통이 훼손되어가는 것 아쉬워, 금박은 우리나라 전통”



9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 인도네시아국립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김영선 주인니대사, (사)한국-인도네시아친선협회 윤해중 회장, 한인회 승은호 회장, 위보보 국립박물관 부관장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자수문화협회의회(이사장 김시인) 회원들의 자수 작품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한국의 중앙일보미술관에서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바틱 전시회를 본 한국자수문화 협의회 회원들은 교류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사되어 인도네시아국립박물관의 초청으로 전통자수, 현대자수, 복식, 매듭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참석한 회원들 모두 천연염색으로 만든 한복을 입어 은은하고 멋스러운 한복의 자태를 보여주어 인상적이었으며 참석한 인니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시장 정면에 걸린 금박장식의 흥원삼(김명임 작품)과 활옷(김시인 작품)이 전시장을 들어서시는 관객의 시선을 끌었다면 그 다음은 작은 소품과 매듭장식이 과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까 싶을 만치 연실 감탄을 자아내며 만져보고 싶게 만들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배냇저고리와 돌잡이 아기들의 옷에도 수를 놓아 무병장수를 기원했으며 보자기나 베개도 예사로운 것이 없었다. 아이들의 모자에도 조바위, 굴레, 겨울에 쓰는 털모자 풍뎡이 등 다양한 우리말 이름들이 재미있었다. 특히 아기의 두루마기를 무관의 관복을 상징하는 호랑이수를 놓아 아름답게 지어놓은 김인자 작가의 작품은 그것을 입은 아이의 의젓한 모습이 상상되었다.

간단한 수놓기도 2년은 배워야 한다는 말에 그 정성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회원들 대부분이 짧게는 십년에서 삼십 년 이상 한길을 걸어왔다. 텔레비전 사극에서부터 전통이 훼손되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금박은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말하는 김명임 회원도 정갈한 멋에 반해 매듭을 시작으로 천연염색과 자수까지 이미 삼십 년이 넘었다한다. 전시회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우리의 복식문화는 결코 소박하지도 단조롭지도 않았다. 실용성과 편리함을 더해 아름답기까지 했다는 것을 잊볼 수 있었다.

<취재 : 안미경 리포터>





(사) 한*인니문화연구원 제13-14회 열린강좌 개최 - 한방과 양방의 조화 -

를 한 사람 알아두고 위급한 상황을 항시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사고가 났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응급처치 4단계를 RICE로 정리하여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17일과 24일, (사)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두 번의 열린강좌가 연속으로 개최되었다. 이동균 박사의 열강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의 주제는 ‘한방과 양방의 조화’였으며, <제13회>총론 및 우울증이겨내기, <제14회>폐 질환 및 인체의 신비로 이어졌으며 현대인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한-양방 두 가지 각도에서 풀어주었다.

우울증의 원인과 대처법, 양성-음성 체질의 특성 등을 강의한 13회 강의에 이어 열린 14회 강좌에서 이 박사는 “양방에서는 이상유무의 확인으로 한방에서는 음양의 조화로 병을 판별한다”며 한방의 오행(목화토금수)은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모혈 압박을 통한 통증완화법과 복진을 통한 병의 이상유무 판별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복진을 할 때는 피검자의 무릎을 45도 각도로 세워 편안한 자세로 눕게 한 후 배를 손으로 눌렀을 때나 떼었을 때 아픈 곳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것이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라고 했다. 특히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심장관계 전문의

R - REST

제2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사고장소에서 빨리 벗어나라

I - ICE BAG

출혈방지를 위해 상처를 찬 얼음으로 감싸주어라

C - COMPRESSION

다친 부위를 묶어서 압박시키되 너무 강하지 않게 하라

E - ELEVATION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켜라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강좌를 해주신 이동균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아직 건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12월에 다시 한 번 강좌를 마련하겠다”고 환경과 음식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열린강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021) 7883 9597

이동균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대체의학자
한방대학 침구학 및
해부학 교수



헤리티지 정기 총회 성황리에 개최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이하 헤리티지)의 정기 총회가 15일(목)에 네덜란드대사관의 에라스무스 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최소한 40여 국가에서 온 약 700여 명의 외국인과 한국인 4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헤리티지는 1년에 두 번 5월과 9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오늘 9월의 정기총회는 연회비를 내고 회원제강신, 신규회원 가입, 수요탐방반(Explorer), 저녁강좌(Evening Lecture), 오지탐험(Heritage Tour) 등 새로운 활동을 신청하고 시작하는 날이다.

대략 400여 명의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한국인은 20명 정도 참석하였으며 코리안부스에서는 한국어섹션 안내를 맡아 헤리티지회원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헤리티지코리아섹션은 2008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대략 4년간 박물관투어, 스쿨프로그램, 박물관언어과정, 사진반, 열린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의 샤프론봉사단과

연계하여 학생자원봉사단을 구성, 헤리티지의 박물관 영어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헤리티지는 그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코리안섹션에는 이미경, 이수진 공동회장이 선임되어 새롭고 의욕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스나안 플라자 센트럴 스나안 17층,
021 572-5870



이제, 망설이지 말고 짜장면! 하세요~~ 국립국어원, 언어 현실 반영하여 표준어 확대

‘짜장면’ 등 39항목 표준어로 인정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떡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 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2010년 2월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십)에 상정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 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 표준어 대상으로 선정된 총 39항목이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항목이다.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견
품새	품세
짜장면	자장면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간질이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간지럽히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는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으나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자장면’, ‘태견’, ‘품새’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하였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 그 정신은 첫째의 경우와 같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1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뭇자리	뿔자리	토란대	고운대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복숭아뼈	복사뼈	허접쓰레기	허섭쓰레기
등물	목물	세간살이	세간	흙담	토담
맨날	만날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2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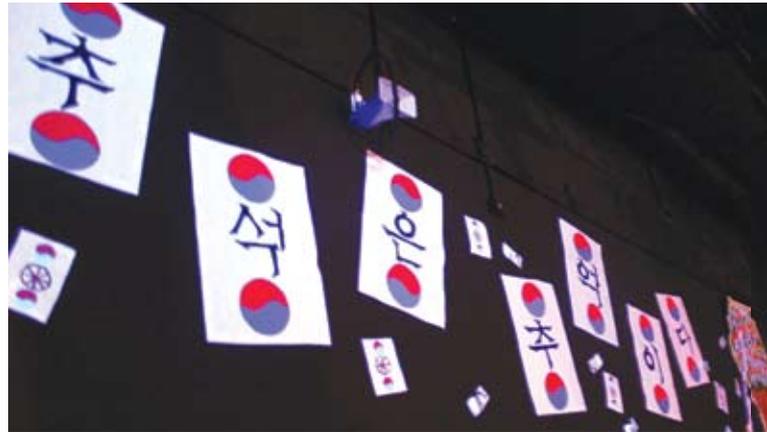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길래	~기에	~길래: '~기에'의 구어적 표현.
개발새발	괴발개발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임.
나래	날개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
내음	냄새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눈꼬리	눈초리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예) '매서운 눈초리' ·눈꼬리: 눈의 귀 쪽으로 찌진 부분.
떨구다	떨어뜨리다	'떨구다'에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 있음.
뜨락	뜰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하는 뜻이 있음.
먹거리	먹을거리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름.
메꾸다	메우다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려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손주	손자(孫子)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	연방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횡하니	횡허케	횡허케: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꼬적거리다	끼적거리다	"
두리몽실하다	두루몽술하다	"
맨송맨송/ 맹송맹송	맨송맨송	"
바둥바둥	바동바동	"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
아웅다웅	아웅다웅	"
아멸차다	아멸치다	"
오손도손	오순도순	"
찌뿌둥하다	찌뿌똥하다	"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추석은 추억이다 - JIS 추석파티

취재 : 한인뉴스학생기자 길 나 연 (JIS 12)

지난 9월 17일, 자카르타국제학교(이하 JIS)에서 '추석파티'를 개최했다. 추석파티는 해마다 JIS 코리아클럽이 주최하는 추석잔치이다. 추석파티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 추석파티의 또 다른 목적은 9학년 신입생 환영회이므로 전체 학년이 친분을 쌓는 시간이기도 하다. 코리아 선생님께서는 '추석'이란 우리 고유의 명절 이름에 '파티'란 서양단어가 조합된 것은 '갓 쓰고 한복 입은' 느낌이었지만 국제학교인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합된 이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추석파티는 공연 계획부터 무대장식, 진행까지 모두 코리아 클럽 간부들과 회원이 주체가 되어 준비한다.

학생들은 모두를 조에 편성하는데, 올해는 조 이름을 송편, 무지개떡, 인절미 등 맛있는 떡 이름으로 정한 것이 색달랐다. 각 조는 마임 게임, 스피드 게임, OX 게임 등 다양한 게임에 참여해서 점수를 획득해야 했다. 그리고 점수를 가장 낮게 받은 두 조는 간부들과 뒷정리를 해야 하는 벌칙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게임에 집중했다. 이런 그



룹게임은 서먹서먹한 선후배 관계를 단숨에 풀어준 해결사 역할을 했다. 또 팀 멤버를 서로 도와가며 알아가는 것이 보기 참 좋았다.

추석파티가 열리기 전에 오디션을 통해 뽑힌 공연팀의 멋진 무대도 보았다. 가수같이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학생들의 노래 무대, 모두가 반할만 한 화려한 춤, 그리고 관객을 압도한 멋진 밴드 공연까지. 뜨거운 공연 호응은 마치 유명가수의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추석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학업과 병행하느라 쉽지 않았을 텐데 공연팀은 공연 당일 아침까지 최종 리허설을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한정된 공연 시간 때문에 학생들의 재능을 무대에서 모두 볼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다. 오디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의 공연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추석파티를 계획하고 무사히 끝마치기까지 보이지 않은 수많은 주인공이 있다. 올해 소강당을 멋지게 장식해 준 학생들, 코리아 선생님, 그리고 한국 어머니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어머니들께서는 간단한 저녁으로 떡볶이, 송편, 치킨 등을 제공해주셨다. 이번 추석파티는 소강당(Little Theater 이하 LT)에서 개최하여 상당한 시간과 정성



을 투자한 것이 돋보였다.
추석파티 약 2주 전에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마니또’ 라는 게임을 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마니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자는 취지로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자신의 자화상 그리기 등 여러 가지 미션을 했다.

마니또의 하이라이트는 추석파티 때 자기 마니또를 만나 선물을 주는 것이다.

행사를 마치고...

코리안 클럽 간부들 ; 추석파티를 끝내니 시원섭섭하고 코리안 클럽에 기여를 들어서 뿌듯하다,

사회자 ; 모두 호응을 잘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이 났다,

학생들 ; 추석 명절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편을 먹고 놀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 추석 파티를 통해 GIS의 선후배 사이가 돈독해졌으며 앞으로 계속 이런 좋은 모임이 계속되어 GIS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 & 코리안 선생님 ; 코리안 클럽 간부들의 탁월한 공연기획과 철저한 준비를 치하하셨다!

누구한테는 처음이었을 추석파티였고, 다른 누구한테는 마지막 추석파티였다. 하지만 모두에게 ‘잊혀지겠지만 잊혀지지 않을 멋진 추억’ 으로 남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 코리안 클럽은 오는 11월의 United Nations Day 때 공연 준비를 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대세여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현대적인 면으로 K-pop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강의 프로그램

2011년 10월 13일 개강 (8회)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9:00 -10:30		인니어 초급 I (조은숙)	바틱 폴리스 (Ibu Novi Kusuma)	인니어 초급 I (조은숙)	Bali 댄스 (21일개강) (Ibu Ina)	
10:00 -12:00	양끝롱 (아름바) (Pak Rih Gumilang)	Bahasa Korea (김현숙)	Bahasa Korea (강미경)	Bahasa Korea (김현숙)		Bahasa Korea (강미경)
11:00 -12:30		인니어 초급 II (조은숙)	양끝롱 (아름바) (Pak Rih Gumilang)	인니어 초급 II (조은숙)		

Lovekoin@hotmail.com // 박윤정 pyjkics@gmail.com //
사공경 sagong@hotmail.com (0816-190-9976)



글로벌 코리안 양성을 위한 JKS, ‘토요문화교실’ 운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선종복)는 9월 24일부터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코리안 양성을 위한 ‘토요문화교실’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토요문화교실’은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대한민국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해외 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한편,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강좌는 9월 24일, JKS 교사 채상진의 ‘Ice break’를 시작으로, 30여년 해외체류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세계인이란 무엇일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마련한 홍혜선(주인니 대사 부인)의 ‘코스모폴리탄으로 살기’,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김은미(CEO SUITE 대표)의 ‘세계를 향해 달려라’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과 역사, 문화, 사회 및 국제사회와 경제,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최근 JKS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모토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토요 문화학교’를 통하여 인니주재 많은 청소년들이 민족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월 1회 실시되며 매 강좌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JKS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차시	강의날짜	주제영역	내 용	강사명	비 고
1	9/24	OPEN	ICE BREAK	채상진	JKS 교사
2		역사 . 문화	한국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함양 (세계문화유산)	신애란	photo standing
3	10/29	시사	한 . 인니 문화	사공경	한인니문화원장
4		자기경영	코스모폴리탄으로 살기	홍혜선	재인니대사부인
5	11/19	우리말	바른말 고운말 쉬운말	채상진	JKS 교사
6		국제시사	세계를 향해 달려라	김은미	CEO SUITE
7	12/17	국제문화이해	또 다른 나와 만나는 여행	권정란	JKS 교사
8		국제사회이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 사회적 잠재력	조연숙	데일리 인도네시아 편집장

□ 일정 및 프로그램

장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다목적실(매점 건물 2층)

시간 : 오전 8시 ~ 오전11시

신청 문의 : 0852-1614-7901 (신애란)

*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홈페이지(www.jiks.com)의 온라인수강신청 참조.

JIKS, 문화 축제 2011 KOREAN DAY 개최

“문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

한국을 알리는 영상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JIKS 학생들은 물론 교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전통문화를 통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1부에서는 해동검도, 전통춤,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 공연이, 2부에서는 다도 체험, 붓글씨 쓰기, 굴렁쇠 굴리기, 널뛰기, 윷놀이, 단체 줄넘기, 투호 등 교내 곳곳 22개소에 주로 전통문화와 전통놀이 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인니민속춤과 고적대 공연, JIKS 학생들의 한국 전통춤, K-POP과 댄스 공연, 한바패의 길놀이까지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JIKS 학생들의 인도네시아 전통춤(KECAK DANCE, LENGGANG NYAI) 공연과 SMA68 학생들의 한국 전통춤 공연, 그리고 JIKS 학생과 인도네시아국립대학(UI)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사물놀이 공연, 상대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마당은 문화 교류를 통한 동반자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빛어낸 JIKS 문화 축제 한마당이 JIKS, 나아가 교민사회에 새로운 축제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유총연맹 나라사랑 글짓기대의 최우수작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배 현 민 (JKIS 6학년 1반)

요즘 잔잔해졌던 독도 문제가 다시 시작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동해를 일본 해라고 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하며 울릉도를 방문 하려다가 김포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일본의원은 “우리도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을 방문 할 경우, 입국을 거부하자.” 고 제안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독도를 한반도에 속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100년 전, 일본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기록해서 가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참, 어이가 없다.

조선시대 일본에서 한 어부가 사형되었다. 이유는 그 어부가 독도에 가서 나무를 베어갔기 때문 이었다. 일본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인정한 것이다. 또, 일부 지성이 있는 일본 역사 학자들도 독도가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일본은 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일까?

제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일본은 1951년 미국에 의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한국에 반환했다. 하지만 독도는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66번째 광복절이 있었다. 여전히 그 날도 일본은 계속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었다. 하지만 독도가 계속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때마다 일본은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야욕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얼마 전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자고 정부에 요청을 했다. 하지만 나는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면 일본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붙어보자 라는 식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리적 힘을 과시하는 것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더 큰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활용 했으면 좋겠다. 국제학술대회 같은 것이 그 좋은 기회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얼마 전, 사진작가들과 화가들이 독도를 주제로 아름다운 작품들의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와 한류의 열풍을 타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몽고의 한 박물관에 있는 세계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것을 본 한국의 두 고3 소녀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왜 그 세계지도가 잘못된 것인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여 몽고의 한 역사박물관의 세계지도에 일본해가 사라지고 동해라는 표기가 생겼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처럼 독도를 지키는 것은 어른들만의 몫이 아니라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나 고문서를 공개하여,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그 정서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독도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인이나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들이 어린이라 할 지라도 두 팔을 걷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 동생들은 독도로 수학여행도 가고 졸업여행도 갔으면 좋겠다.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지 66년이 되었다. 우리의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 줄 수는 없다. 특별히, 요즘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류를 잘 활용 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독도의 홍보대사가 되어, 일본의 망발과 망언에 하루 속히 중지부를 찍었으면 좋

겠다. 더불어, 독도를 무대로 한 관광상품, 해양기지, 자원개발 시설 등이 하루속히 마련 되었으면 더 좋겠다.

우리가 독도의 주인인 만큼, 독도를 우리 스스로 가꿀 줄 아는 꿈을 꾸고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참 좋겠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서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도와 동해가 한국의 땅과 바다임을 인정할 것이다. 어찌면 이미 그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 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독도가 우리 땅이어도 대한민국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지도에 일본의 영토라고 표시 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광복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만 독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독도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 될 때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말이다.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 조국의 영토 한 자락 한 자락에 소중한 마음과 관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실, 그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땅이다.

수 상 자 명 단

수상등급	수 상 명	성 명	학교명/학년	상 품
최우수상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상	배현민	JIKS 6-1	갤럭시 Tab
우수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방하영	JIKS 5-1	갤럭시SKY핸드폰
우수상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김다윗	JIKS 8-2	갤럭시SKY핸드폰
장려상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정수연	JIKS 8-1	디지털카메라
장려상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문소연	JIKS 10-3	디지털카메라
장려상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추이영	JIKS 10-3	디지털카메라
장려상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김대웅	JIKS 11-2	디지털카메라
장려상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이선엽	간디 12	디지털카메라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오문수	JIKS 6-3	대용량 HDD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방하은	JIKS 5-2	대용량 HDD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신정수	JIKS 4-2	대용량 HDD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이재영	JIKS 9-3	대용량 HDD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배예원	JIKS 9-3	대용량 HDD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박주영	JIKS 9-3	대용량 HDD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노진수	JIKS 10-3	대용량 HDD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고원복	JIKS 10-	대용량 HDD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이송현	간디 8	대용량 HDD
가작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상	이한결	JIKS 2-1	대용량 HDD

<심사평 중에서>

“이번에 우수 및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한 작품은, 응모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의 스토리를 잘 정리한 작품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자신이 몸소 느낀 바와 나아갈 의지를 다지는데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물론 다짐을 하고 있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도 그와 같은 다짐에 동의하거나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활동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열거하기 보다는 진실을 따라가야 감성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진 ‘나라사랑’ 글짓기 응모전은 하나의 시간적 모멘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2011년 9월11일 한 상 재 (인도네시아한인문예총회장)



인도네시아와 한류 - 1 한국 드라마

신영덕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학과 객원교수)



이 글은 신영덕 교수가 지난 8월에 한국에서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한류보고서이다. 논문게제를 허락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동남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3회에 걸쳐 본지에 게재한다.

이 논문의 서문은 “한류 곧 한국의 대중문화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유로 한류는 학계의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류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연구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다. 한류 분석을 위해서는, 선진국 문화, 서구문화, 중심부 문화, 강대민족문화 등이 후진국으로, 비서구로, 주변부로, 약소민족문화권으로 일방향, 수직적으로 흐르고 이동한다는 대중사회론이나 대중문화론 혹은 문화확산이론이나 문화중속이론 혹은 문화제국주의론 같은 기존의 문화분석틀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콘텐츠를 소비·이용하는 수용자와 수용 행위를 중요한 문화 이용 행위로 보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과 행위의 정향점(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은 인도네시아의 한류를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서울 출생. 1976 공군사관학교 입학.
1987 서울대 국문과 석사학위,
1994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취득
일본 쓰쿠바대학 연구교수(전쟁문학 전공)
저서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전쟁과 소설』
공저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는 2002년 월드컵 이후부터 한국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급상승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드라마 <가을동화>가 2002년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방송인 인도시아르 TV에 방영되면서 시청률 11%, 가시청 인구 2,500만 명을 기록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겨울연가>가 방영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한류 스타 패션이 유행했고, <가을동화>와 <겨울연가> 등 드라마 주제곡도 유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열기는 한국 대중가요(K-POP)에 대한 관심과 팬클럽의 결성, ‘한사모’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Bandung Korea Community)의 결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는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가을동화>, <겨울연가>, <풀 하우스> 등의 드라마가 많은 인도네시아인의 호응을 얻자 한국 드라마는 지금까지도 <표1>과 같이 인도네시아 TV에 꾸준히 방영되고 있다.

2011년 1월 30일, 한국드라마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필자에게 인도네시아대학교 3학년 학생 Diah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밝혔다.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만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 드라마 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처음 봤던 드라마는 인도시아르에 방송한 가을 동화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친한 친구가 그 드라마를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다 끝난 후에 집에 바로 돌아가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방송한 가을 동화를 봤습니다. 가을 동화는 슬픈 장면이 많이 있어서 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을 동화 방송을 끝난 후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인도시아르나 다른 방송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겨울 연가, 슬픈 연가, 풀 하우스를 방송했습니다. 특히 풀 하우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드라마보다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인도네시아에 나온 한국 드라마가 약간 슬프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부터 이제까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른 나라의 드라마보다 장점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한국 드라마에 나온 남배우와 여배우들이 잘 생기고 예뻐요. 배우들 때문에 한국 드라마 보기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배우의 연기가 아주 좋아서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사실로 느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는 보통 전통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K-POP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좋은 사운드트랙이 많이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매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슈퍼 주니어, 다비지, 소녀시대와 등등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온 audition (ayo dance) 라는 컴퓨터 게임으로 K-POP 뮤직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표1. 인도네시아 TV의 한국 드라마 방영>

2002	가을동화	Indosiar
2002	유리구두	Trans TV
2002	애인	Trans TV
2003	아름다운 날들	Indosiar
2003	프렌즈	Indosiar
2003	겨울연가	SCTV
2003	팝콘	SCTV
2004	호텔 리어	Indosiar
2004	올인	Indosiar
2004	이 죽일 놈의 사랑	Indosiar
2004	풀 하우스	Indosiar
2004	상두야, 학교 가자!	ANTV
2005	COFFEE PRINCE	Indosiar
2005	18 VS 29	Indosiar
2005	슬픈 연가	Indosiar
2005	웨딩	Indosiar
2005	윈드폴 라이프	Indosiar
2006	대장금	Indosiar
2006	궁	Indosiar
2009	꽃보다 남자	Indosiar
2009	헬로! 애기씨	Indosiar
2010	신데렐라 언니	Indosiar
2010	선덕여왕	Indosiar

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배우의 외모와 연기력이 뛰어나고,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으며,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대중가요를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다른 인도네시아인들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007년도의 다음 기사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시청자중 「풀 하우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젊은이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 멜로드라마는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한국 젊은이들의



생활 및 의식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한국을 동경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비와 송혜교가 주연한 이 드라마는 2003년 이후 제작된 KBS의 드라마로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드라마였다. 필리핀에서의 열풍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다를 바 없는 현상이다. 필리핀 AGB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평균 42%의 시청률을 올렸으며 초기 방영시 30%의 시청률을 그리고 마지막 회는 50.3%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올렸다. 또한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풀 하우스>를 제외하고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10대 드라마로는 <가을동화>, <겨울연가>란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이 모두 '인도시아르'를 통해 큰 반응을 보였던 작품들이다. 2005년도에는 아시아 드라마로서 'Metero Garden' 이후 시청률 5위 안에 기록된 아시아의 2번째 드라마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의 열풍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걸림돌은 한국 드라마 가격 상승과 드라마 내용의 유사함으로 지적된다. 인도네시아 방송국 중 꾸준히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는 방송국으로는 인도네시아 전국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Indosiar', 'Anteve', 'JakTv'가 있다. 현재 Indosiar에서는 비와 송혜교 주연의, 그리고 JakTv에서는 배용준, 송혜교, 김승우, 송은아가 열연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으며 이 두 멜로드라마는 2005년 한 번 방영되었으며 현재 재 방영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방영이 종료된 한 드라마는 6월 7일부터 주말 오후 5시에 재방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Anteve에서는 1월과 5월 사이에 걸쳐 한국 드라마를 방영했다. JakTv에서는 애초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외국 단편드라마 혹은 영화를 방영하는 시간에 한국의 단편극 혹은 영화를 소개하곤 했는데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Indosiar나 Anteve가 한국의 연속극을 방영하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자 정책을 바꿔 2007년 이후에는 연속극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세 방송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가정 혹은 가족의 사랑 및 갈등을 주제로 하거나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들이다. 이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한국 드라마들이 시청자

들의 요구에 의해 재방되고 있는 경향을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시청자들의 요구와 달리 한국드라마가 방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공급자들의 의지나 수익성에 따른 작품의 선택적 공급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존에 방영된 드라마들을 통한 한국 연기자들에 대한 인상은 희고 예쁘다, 혹은 멋있고 세련됐다는 인식을 주었으며 각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자연스럽다는 인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줄거리의 구성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내용의 유사함으로 표절시비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현지 작품들로는 드라마 <궁>과 유사한 <Benci Bilang Cinta-증오가 사랑을 말하다>, <My Girl>과 유사한 <Benci jadi Cinta -증오가 사랑이 되다>, <쾌걸 춘향>과 유사한 <Cinta Remaja-젊은 사랑>, <내 이름은 김삼순>과 유사한 <Darling>, <낭랑18세>와 유사한 <Kawin Muda-조혼>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드라마들의 소재를 표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드라마의 주제 및 줄거리의 흐름이 인도네시아 시청들에게 뭔가 색다른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간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글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07년도 당시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풀 하우스>이고, 둘째, 한국 드라마를 주로 방영하는 방송국은 'Indosiar', 'Anteve', 'JakTv'이며, 셋째, 인기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가정 혹은 가족의 사랑 및 갈등을 주제로 하거나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들이고, 넷째, 인도네시아 드라마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모방하여 표절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달라진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현재 공영 방송 이외에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DVD, 인터넷 다운로드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수시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대부분 불법 DVD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해적판 DVD는 값이 싸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매하여 보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기사 내용은 그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대형 백화점 음반 판매대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 DVD,CD가 가득하지만 정품보다 불법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불법복제품은 중국 화교상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서인지, 중국어로 번역된 대사가 다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도 수두룩했다. 평균 소득이 한국의 1/10에 불과한데 영화관람료는 자카르타가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 지방은 4천원선, 거의 한국의 2/3 수준이다. 불법 복제 DVD가 700원에 팔리고 있었으니까 불법복제품으로 물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문화진흥책을 강구하고 한국어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한국 드라마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인들에게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네시아 TV 홍보 책임자인 구프로나 사카릴(Gufroni sakaril, manajer humas indosiar)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명해진 것은 한국 드라마의 내용이 인도네시아 사람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할리우드와 연속 멜

로드라마의 내용에 싫증이 났기 때문일 것이며, 그 결과 한국 드라마는 일본과 대만 드라마보다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O-Channel 방송사 간부인 위디(Widi, staff bagian programming stasiun televisi O-channel)는 한국 드라마가 잘 생긴 배우를 많이 보여주고, 내용에 있어서 시청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카르타 소재 대학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한국인의 생활양식이 인도네시아인과 비슷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쉽

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 드라마의 좋은 점은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2010년 9월 16일, 필자는 인도네시아 대학교 한국학과 4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류 중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한국 드라마였으며,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풀하우스>, <가을 동화>, <대장금>, <꽃보다 남자>, <겨울연가>, <궁> 등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배우의 외모를 들었다. 잘 생긴 배우의 외모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응답은 주로 여학생들에게서 나타났지만, 이러한 반응은 인도네시아의 중년 여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는, 드라마의 내용이였다. 한국 드라마는 인도네시아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내용이 많다고 하였다. 서양과 아시아의 정서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한국 드라마는 재미와 웃음을 주어서 좋으며, 드라마의 적절한 길이와 배경음악 등도 좋다고 하였다.

한국 드라마는 이처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한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방송이 끝난 후에 한국 배우나 가수에 관한 팬클럽 혹은 팬카페가 많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지면 사정으로 필자가 논문에서 밝힌 참고목록이나 주석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은 '한류음악'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편집자-

100년의 삶과 꿈

편집부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은 옛말??

성경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오래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안에 인간의 장수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일 터이다. 또한 진시황은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온 세상을 뒤지게 했다. 역사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오래 살기 위해 약을 구하고 비방을 한 사람들이 어디 진시황뿐이겠는가. 장수는 인간의 오랜 꿈이다.

그런데 최근(2011.6.1.-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반기는 기색이 아니다. 그런 김새를 알아차린 모 신문에서는 '100세 시대, 축복일까? 재앙일까? "라는, 인간의 오래 된 꿈에 위배되는 연재를 싣기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이겠지만 그 개인적인 입장이 바로 시대와 사회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은 아닌 듯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평균수명 100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오래 사는 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3%가 평균수명이 연장돼 90~10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은 축복이 전혀 아니다/아니다로 답했다. 그저그렇다는 응답은 28.0%, 축복이다는 28.7%였다.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8.3%로 가장 많았고, 빈곤, 질병, 소외 등의 노인 문제 발생 때문(30.6%), 자식에게 부담될 것 같아서(24.1%) 등이었다. 수명이 길어져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응답자의 32.0%가 연령과 관계없이 건강할 때까지 일하기를 바랐다. 이어 65~69세가

지 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31.5%였고, 60~64세(25.0%), 70세 이상(11.5%) 순이었다.

장수는 더 이상 축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원할 것 같던 인간의 오랜 꿈은 어느새 이처럼 변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다수 국민은 평균 수명 연장으로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대비해 경제적 준비한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에서도 "평균 수명 연장으로 국민은 노후 준비에 공감하고 있다"며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대비해 노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정말이다. 이제 당신이 100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현실이 되었다. 당신의 주위를 살펴보라.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한 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945년생이 100세까지 살 가능성은 23%라고 한다. 분명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기대수명이 느는 만큼 은퇴의 대열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막연한 생각으로 오래 살기를 바랐던 당신도 막상 100세까지 산다는 현실 앞에 서면 생각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80살까지는 살겠지, 그렇다면 55살에 정년퇴직하고, 60세까지는 적당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70살까지는 여행,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평균수명이 100~120세라고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뜯어고쳐야 할지도 모른다. 수명 80세를 가정하고 은퇴 이후를 준비하

던 당신,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 즈음 심경이 어떠신지.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기쁘기만 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생각에 잠겨 있을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이후를 위해 가능한 지혜를 모아 노후의 프로그램을 짜고 평생 현역으로 살다가 멋지게 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하지 않겠는가.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강창희 소장은 “100세 인생의 새로운 설계는 오래 사는 위험, 즉 장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며 노년을 대비하는 ‘자산관리 5계명’ 을 제시하며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자산관리 5계명

1. 현역기간을 최대한 늘려라

여러 일자리를 옮겨 다니더라도 현역으로 일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높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누가 더 오래 다니느냐가 관건이다. 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직장은 여기저기 옮겨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체면을 버려야 한다. 자기만의 주특기도 있어야 한다. ‘평생 현역’ 으로 살려면 인생 2막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2. 부동산 줄이고 금융자산 늘려라

우리는 은퇴하면 대부분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다. 노후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이유다.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7퍼센트인 반면 미국은 33퍼센트, 일본은 39퍼센트 수준이다. 일본도 예전에는 부동산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미국식으로, 아니 미국보다 더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은 인구구조 등 외적인 변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이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출산율 저하와 노인인구 증가로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다.

3. ‘소득의 3층밥’ 을 지어라

국민연금은 필수이고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

금에 함께 가입, 노후 소득원을 삼중 장치로 해 놓으라는 것이다. 노후에 매달 만만찮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금만큼 든든한 게 없다. 일본과 미국의 노후 생활재원은 70퍼센트가 연금이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물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30, 40대가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 교육에 대한 원칙 정립이다.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들이 꼽는 이유 중 60퍼센트 이상이 자녀교육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자녀의 부담을 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건강관리가 진짜 재테크이다

노후에 가장 큰 변수는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는 것이다. 늘 운동하고 몸 생각을 해야 한다. 미국, 일본에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 생활비가 줄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줄지 않았다는 대답이 30~40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비와 간병비에 있었다. 여기에 요양원이나 노인홈에서 보내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도 생활비가 줄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였다. 우리나라도 같은 조사를 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물론 관련 보험에도 가입해 두어야 한다.

5. 은퇴준비는 20대부터

20대에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산을 늘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40, 50대라도 늦은 것은 아니다. 100세 인생에 50대는 반환점이다. 주의할 점은 이제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이라면 장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으로서 ‘자기 자신’ 을 연마하는 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회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는 시기로 이런 비상시에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형태로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 고 경고했다. “평생 현역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는 것이 강 소장의 충고다.



김성월 / 수필가, 방송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별과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부르는 새벽송

우리 조상들의 모닝콜은 수탉이었다. 그러나 문명에 잘 길들여진 우리들은 모닝콜로 알람시계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핸드폰을 많이 이용한다. 금속성 음만 울리는 알람시계보다 핸드폰이 모닝콜로 더 좋은 이유는 노래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신입사원이 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잠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혼자 일어나 정시에 출근하는 것 보면 신기하다. 그 비결이 바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사가(회사노래)를 모닝콜로 해 두었던 것이다. 아무리 잠이 쏟아져도 사가만 들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긴장되어 잠에서 벌떡 깨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일어나서 식사해야 하는데 잠에 취해 못 일어나면 온종일 굶어야 하는 기간이 있다. 바로 라마단이다. 한 달이라는 길지도 않지만 그리 짧지도 않는 금식기간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모닝콜을 해 주는 그 무엇이 있다. 수탉도 핸드폰 알람도 아닌 바로 한십(HSNSIP)이다. 한십들은 라마단 금식기간에는 마을을 돌면서 새벽마다 주민들을 깨워 식사시간을 알려준다. 사이렌을 울리거나 나팔을 불어대며 주민들을 깨우러 다니는 게 아니다. 굵직한 대나무 한마디를 잘라 홈을 파고 작은 막대기로 통통 치면 청음이 난다. 이 도구를 끈똥안(kentongan)이라고 한다.

한십들은 마을의 민방위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직업이며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스스로 한십이 되어 마을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새벽이 더 활기차다.

“사후르~ 사후르~ 사후르~”

까만 밤을 하얗게 새우던 날은 “사후르~ 사후르~” 노래와 둔탁하면서도 멀리 퍼져나가는 끈똥안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새벽을 뒤흔들었다.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지만 나처럼 말랑시내에서도 시원한 뽕짝에 살면 이슬람사원(Mesjid)이 가까워 저절로 듣는다. 흔들린 새벽이 잠잠해지려고 하면 아단 수부(Adan subu)가 뒤따라 울린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의 새벽은 그 여느 때보다 노래로 분주하고 요란하다.

한십들이 사용하는 이 끈똥안은 오래 전부터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전 봉화대를 사용했던 것처럼, 끈똥안은 마을 사람들과의 약속이었다. 마을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끈똥안을 여러 번 계속 친다든가 화재가 나거나 사람이 죽었을 때 또 마을의 공동 작업이나 회의가 있을 때 끈똥안의 소리를 듣고 주민들은 알 수 있었다. 평상시 야간에는 마을의 안녕을 유지하고 주민들

이 포근히 잘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 매 시간마다 꽤중시계처럼 끈땀안을 울려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요란하여 인도네시아 처음 왔을 때 나는 밤마다 그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경기할 뻔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청각이 둔해졌는지 이젠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다.

모양과 맵시라고는 전혀 없는 끈땀안이지만 자바 지역 특히 말랑과 바뚜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 받는다. 그리하여 말랑과 바뚜에서는 라마단 금식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 밤에 사후르경연대회도 열린다. 이 경연대회는 참가하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 참가팀들은 반드시 끈땀안을 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끈땀안을 치며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회가 바뚜에서 시작하여 말랑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대회 규모 역시 커지면서 화려해지고 있다. 특이한 것은 오프닝 때 시장과 유지들이 끈땀안을 하나씩 들고 통통통 치면서 대회가 시작된다. 예전에는 사람들

이 길에서 대회를 하였고 여러 팀들이 나와서 끈땀안만 하면 소리가 부족하기에 빈 생수통과 북을 들고 나와 외쳤다. 그러다가 요즘은 한 팀에서 트럭에 벤조르와 용까지 거대하게 장식하였고 게다가 북장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또 참가팀원들이 어른들에서 아이들까지 함께 참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찰부대가 현대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요즘은 경찰들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순찰한다. 사이렌 소리가나는 불빛과 끈땀안을 두드리면서 마을을 순찰한다. 재미있는 표현은 경찰들이 순찰하는 건 빠뜨롤리(Patrol)라고 말하며 한심들이 순찰하는 건 머론다(Meronda)라고 인도네시아 말로 표현한다.

사후르(Sahur)는 아랍어이며 알라신이 축복으로 주는 음식이니 일어서나 먹으라는 뜻이다. 사후르 때 식사하고 종일 금식 한 후 부카 뿌아사(Buka Puasa)를 할 때 주로 속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부드러운 걸 먹기도 하는데 딱질(Takjil)이라고 한다. ■■■■





느림의 미학!

박 관 구 / 자카르타 안디익교회 목사

오늘날은 빠르냐 느리냐가 곧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세상이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피자가 배달되는 시간이 더 빠른 “이상한 속도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들 서두른다. 음식도 베퉼에 콩 구워 먹기 식이다. 운전을 하면서도 이어폰을 꽂고 전화를 주고받으며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다.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이 새 유행이다. 속도 때문이다. 기업들 역시 속도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속도에서 뒤지면 성공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 포브스지는 삼성 성공 스토리를 분석한 기사에서 “속도경영이 바로 삼성이 세계 초일류기업이 된 비결”이라고 했다. 이렇게 현대는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빠름은 능력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빠른 것이 미덕으로까지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 리처드 맥킨은 “우리는 빠른 속도로 대처하지 않으면 몰락한다. 과속은 곧 죽음이란 말은 이제 역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조급하다. 조급함은 심신의 건강은 물론 성품, 인격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도 대부분이 조급성에서 나온다. 조급성은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조급성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이다!”라고 까지 말한다. 한국인의 조급성은 유별나다. 어느 기관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1분에 몇 걸음을 걷는가를 조사한 통계가 있었다. 유럽인은 1분에 25걸음 걷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인은 27걸음을 걸었다. 이에 비해 소련인은 30걸음, 일본인은 38걸음이었다. 우리 한국인은 몇 걸음이었을까? 무려 70걸음으로 조사되었다. 이걸 차라리 뛰는 것과 진배없는 종종걸음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한국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탕을 깨물어 삼키는 민족이라 한다. 하여간 참... ^^

빠르다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

제는 왜 항상 그렇게 빨라야 하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빠야 하는가이다. 결국에는 내면에 공허와 무의미와 상처만 안겨줄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느라 서둘러대고 바쁜 삶이 문제인 것이다. 바쁨에 대한 케냐인들의 인식은 매우 독특하다. 케냐인들은 바쁜 것을 수상하게 여긴다. 그들은 사기꾼이나 바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대로라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엄청 바쁘셔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처럼 뛰어다니시지 않으신다. 성경은 어디에도 바쁜 것이 성공의 표지인 양 부추기고 있지 않으며, 결코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쁜 것과 성취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바쁘게 보여지는 것과 잘 계획된 행동은 엄연히 다르다! 바쁠 망(忙) 자는 마음(心)자와 망할(亡) 자의 합성어이다. 마음이 망한다는 말이다. 바쁘다는 생각 자체가 물리적, 심리적 여유를 빼앗아가며 마음을 황폐로 이끄는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하나? 어느 시인의 말마따나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해 보지도 못한 채 말이다.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하고 너무 빨리, 너무 서둘러, 삶을 지나쳐, 나를 지나쳐 온 것이다. 새겨듣지 못한 대화들, 깊은 사유 없이 읽어 제낀 책들, 포용하지 못한 기쁨/슬픔들... 갈수록 빨라지는 이 속도의 세상, 내가 달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려온 것이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종점이 가까웠다. 인생이 짧았던 것은 아닌데... 비극은 너무 바빠 살아오느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바빠 달려가서 얻을 것은 죽음뿐인데, 죽음이나 다름없는 살아남기였을 뿐인데...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다. 욕구충족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일이다. 서울



역을 물어보면 잘도 가르쳐 주면서도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것이 현 세태이다. 효율성, 생산성에 바탕 한 “바쁘게 살기”는 기쁨, 보람, 행복, 사랑, 가치를 향한 “의미 있게 살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이다. Know-How 보다 더 중요한 것은 Know-What 이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왔어도 종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삶은 단지 생존이었을 뿐이다. 삶을 스스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떠밀려 살아온 것이다. “언젠가”를 살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 “만일 ~ 만 된다면” 하는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길에 이따금씩 “커브”를 주어야 한다. 인생도 강같이 굽이가 있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그럴수록 사람만 자꾸 다치게 된다. 힘에 넘치는 계획을 세워 허덕이지 마라. 그보다는 적절한 계획을 세워 이루어내는 기쁨을 누리라. 무엇이든 너무 빨리 이루려 하지 마라. 성경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잠 20:21)고 했다. 등소평은 일본의 신칸센을 시승한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어딜 가려고 그렇게 빨리 달리느냐?”고 했단다. 대국인의 느긋함과 여유가 묻어나는 답변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괴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라고 했다. 향방(向方)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느림의 미학! 그것은 부드럽고 우아한 삶의 방식이다. 삶을 진정 풍요롭고 여유롭게 한다. 가이슬러는 “느림이야말로 창조의 전제이고 느림이 사랑과 신뢰, 결속을 만들어준다”라고 말한다. 느림은 나타와는 다르다. 여유이다.



이 느림 속에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 어느 가게 카운터에 걸려 있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있지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글은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영국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을 슬로비즈라고 한다. 천천히 일하지만 일은 더 잘 해내는 사람을 말한다. 느림을 잘 이해하면 그 속에 새로운 기회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 이른바 슬로산업이 뜨고 있다. 이들은 느림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너무 바쁘게 사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한, 미처 누리지 못한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는 슬로산업을 넘어 아예 슬로시티까지 등장하고 있다. 슬로시티는 패스트 푸드에 반대해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의 정신을 삶 전체로 확대한 개념이다. 이곳은 전통과 문화,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환경보존, 유기농 농법 등을 바탕으로 유유자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도시이다. 이탈리아의 파올로 사투르니니가 창안한 이 슬로시티는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일 중독, 시간 중독, 서두름, 조급증이 신종 현대병으로 등장한 이 시대!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우리의 삶은 과연 이대로 좋은가? 서둘러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시간에 쫓기면 즐거움은 있을 수 없다. 일이라는 게 서두른다고 더 잘 되어 지는 것도 아니다. 인생이란 게 빨리 달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서둘러도, 빨리 달려도 결국엔 별로 차이가 없다. 자동차로 서둘러 빨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1m의 코스코스 길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가을을 주는 아름다운 꽃 길이 된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느림이 필요하다. 이 느림 속에 여유와 행복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웰빙이 아니겠는가?

그대! 별을 본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인도네시아 변호사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제도상으로 법이라는 마차를 버티고 굴러가는 법조 사륜은 판사, 검사, 경찰 및 변호사이다. 판사, 검사와 경찰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제도적인 제약이 많으나, 변호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정직하게, 공정하게,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보호와 변호사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변호사 윤리강령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1. 변호사의 직무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법원 안 혹은 법원 밖에서 고객을 위하여 법률 상담, 법률 지원, 위임받은 사항처리, 대리, 동반, 변론 등의 법률 서비스를 한다. 즉,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을 대리하여 고객의 법률적인 업무를 처리해주는 일이 변호사의 직무이다, 따라서 엄격한 자격 구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는 일이 남을 돕는 일이라서 전통적으로 점잖은 직업(Officium Nobile)으로 인식이 되어 왔으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적이다, 필자가 수년 전에 직접 체험한 일로, 자동차를 할부로 살려고 일본계 리스 회사에 금융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했는데 거부 사유가 신청인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충격적인 이유이었다,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군인, 변호사 혹은 영화배우에게는 금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군인, 변호사 및 영화배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이 가는 사건이며, 다르게 생각하면 변호사의 퀄리티가 많이 다양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2. 변호사의 자격

- 2.1. 인도네시아 국민(*외국인에게는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 2.2. 인도네시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국내 거주자
- 2.3. 민간 공무원, 군인 혹은 경찰이 아닌 자
- 2.4. 최소 25세 이상 자
- 2.5. 인도네시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변호사 협회에서 시행한 소정의 변호사 교육을 필한 자
- 2.6. 변호사 시험에 합격된 자
- 2.7. 변호사 사무소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변호사 실습을 마친 자 *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라도 2년 동안 실습중인 자는 아직은 변호사가 아님으로 변호사라고 호칭할 수 없으며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불허한다.
- 2.8. 5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2.9. 품행이 방정하고, 정직하며, 책임감이 높으며, 공정하며, 성실한 자

3. 변호사에 대한 호칭

Pengacara(뽕아짜라), Advokat(아드보깁), Penasehat Hukum(빼나시할 후꿈) 혹은 Konsultan Hukum(콘술탄 후꿈) 등으로 호칭하나, 법정 호칭은 Advokat이며 통상 호칭은 Pengacara이다

4. 변호사의 신분 및 직무 수행 지역

법규에 의하여 직무상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 법집행관의 신분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변호사의 의무

- 5.1. 변호사는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별, 종교, 정치, 종족, 부족, 혹은 사회 및 문화 배경상의 상이를 이유로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5.2. 변호사는 법규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 5.3.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무에 부적당한 분야에 겸직할 수 없다.
- 5.4. 변호사가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된 경우에는 재임 기간 중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5.5. 모든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사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변호사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6. 변호사의 권리

- 6.1.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호사 윤리 강령과 관련 법규 내에서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선의로 변론한 내용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면책 특권이 있다.
- 6.2.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관련 법규 내에서 관계 당국 혹은 관련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6.3. 변호사는 관계 당국 혹은 일반 사회로부터 사건의 의뢰인과 동일인으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 6.4.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비밀 유지 권리가 있으며, 전자 통신기 이용에 대하여 도청으로부터 보호받는다.
- 6.5.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호 합의한 수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변호사 협회

공식 인도네시아 변호사협회의 명칭은 Perhimpunan Advokat Indonesia (PERADI)이며 변호사 자격증은 Kartu Tanda Pengenal Advokat (KTPA)라고 한다. PERADI에서 변호사 시험, 실습, 자격증 및 변호사에 대한 감독 직무를 주관하고 있다.

8. 변호사 윤리 강령

- 8.1.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진실하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규와 변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 8.2. 변호사는 수임 시 수임료보다 법집행, 진실 및 공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나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양심에 저촉되는 사건은 수임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 신앙, 부족, 혈통, 성별, 정치 이념 혹은 사회적 신분의 상이라는 이유로 수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8.3. 수임한 분쟁 사건 해결은 소송보다는 협상을 우선 처리 방법으로 해야 한다.

- 8.4.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객에게 승소 보장을 금한다.

- 8.5.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건은 수임해서는 안 된다.

- 8.6. 분쟁 중인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

- 8.7. 고객이 변호사를 교체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뢰한 변호사에 대한 위임장 취소를 확인 후 수임이 가능하다. 전임 변호사는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관련 인포메이션을 의뢰인에게 줘야 한다.

- 8.8. 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상대 당사자의 변호사가 사건의 당사자에게 직접 접촉을 금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해야 한다.

- 8.9. 법원의 판결문을 반드시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8.10. 변호사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규격이나 형태를 크게 하여 자기 이름을 광고하는 것을 금한다.

- 8.11.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변호사 사무실 간판에 쓰거나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것을 금한다.

- 8.12.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사건 헨들링을 허가하거나 구두 혹은 서면 상담하는 것을 금한다.

- 8.13. 일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메스컴에 헨들링중이거나 헨들링했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자신이 수행한 직무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을 금한다.

- 8.14.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사건을 헨들링하는 방법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변호사는 사임할 수 있다.

- 8.15. 전직 판사 혹은 법원 서기 출신 변호사는 최

중 재직했던 법원에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건을 핸들링하는 것을 금한다(*한국의 전 관예우 관행과 아주 대조적이다).

9.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인도네시아 변호사의 퀄리티는 평준화 되어있지 않고 다양하다. 시내에 반듯한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사무실도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 영어를 잘 구사하여 외국인이 의사소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변호사도 있고,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가짜 변호사의 인원도 상당하다. 외국인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대략 다음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기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9.1.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 신뢰할 만한 변호사들은 모두 반듯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 9.2.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변호사에게 자격증을 보여 달라고 해도 실례되지 않으니 주저하지 말고 자격증 제시를 요구하여 가짜 변호사 여부를 확인한다.
- 9.3.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능력이 모자라다고 간주해도 괜찮다. 능력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구사한다.
- 9.4.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로펌의 크고 작음보다는 얼마나 성실한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 성실하게 실력으로 신속하게 일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 9.5.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의 느낌을 주는 변호사는 피해야 한다.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변호사는 한국인의 체질에 맞지 않고 컨트롤이 안 된다.
- 9.6. 수입료가 너무 싼 변호사 선임을 피해야 한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수입료가 싼 변호사는 능력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싼 것이다.
- 9.7. 의뢰하려고 결심이 서면 의뢰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사건 처리를 의뢰한다. 수입료 이외에 공식 및 비공식 경비와 기타 경비 부담 한계를 확실하게 하고, 변호사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한다.

10. 외국인 변호사에 대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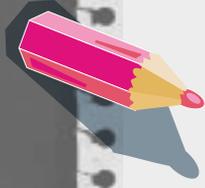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변호사법 제23조는 외국인 변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 10.1. 외국인 변호사에게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변론이나, 활동이나,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대표 사무소 개설을 금한다.
- 10.2. 인도네시아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 협회의 추천을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법 분야의 업무에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외국 법이란 외국인 변호사의 출신국법 혹은 비즈니스 및 중재분야의 국제법을 의미한다.

11. 인도네시아 법률 시장

- 11.1. 인도네시아의 법률 시장은 아직 개방되지 않고 딱 닫혀 있으며, 일차적으로 2013년에 Asean 회원국 변호사에게 개방 예정이며, 9년 후인 2020년에 외국인변호사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 11.2. 한국의 법률사무소가 인도네시아의 실정법을 여기면서 현지에 로펌을 내는 것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으로 적발이 되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재가 있을 것이며, 이에 뒤따를 사회적 지탄과 국제적인 망신이 우려된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불법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돈을 좀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지 한인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계를 위해 현지에서 편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의 케이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 11.3.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본국의 고객회사에게 계속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한국의 법률사무소는 현지법을 여기면서 불법으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법보다는 인도네시아 법률사무소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을 하는 사람이 불법행위인줄 알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법을 할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함께 해요!

행사를 알리고 싶은 분은

한인뉴스편집실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언론·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안내

- 접수기간 : 2011년 10월 17일(월)~10월 31일(월) 제출분에 한해 유효
- 접수방법 :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구체적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 *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 : www.harmonykorea.go.kr

하나은행 CEO 경영/자산관리 세미나

교민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하나은행은 전년도에 이어 기업고객 분들에게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경영 이슈와 국내외 경제 현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CEO 경영/자산관리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 2011년 10월 18일(화)
2. 시간: 13:30 - 18:00 (석식 제공)
3. 장소 : 호텔 인도네시아 Kempinski (땀린) 1층 발리 볼룸

한*인니문화연구원 제2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공모전 시상식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우리는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이국의 달빛에서, 어린아이의 눈빛에서, 그림자뿐인 와양의 흔들림에서, 자바의 영혼 바틱에서 늘 새롭게 태어나는 당신이 그림습니다.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가슴 출렁이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일시: 2011년 10월 24일(월) 오후 5시 (4시- 5시 바틱실습)
* 5시- 6시 30분 시상식 및 앙골롱 공연 // * 6시30분 저녁식사

복장: 인니전통복장(바틱 외)

한*인니문화연구원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한*인니문화연구원 203회 문화탐방

탐방지 : 루마자와

일시 : 10월 15일 토요일 9시 - 12시

* 9시 문화연구원으로 오세요.

인터넷접수 및 문의 안미경 mikyung0417@hotmail.com/ 081514216766

고국에 가지거든 최고의 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재인니한인회와 건강검진 협약, 한국건강검진협회 <홈페이지 : www.kahp.or.kr>



UNIKNYA TRADISI LEBARAN DI INDONESIA

Yuni Sugandini

인도네시아 르바란 전통의 독특함

Dalam setiap tahun, selalu ada bulan yang ditunggu-tunggu oleh umat Islam yaitu bulan Ramadan, bulan yang penuh kebaikan untuk menjalankan ibadah puasa dengan menahan hawa nafsu, serta melakukan berbagai rangkaian ibadah lainnya selama sebulan penuh untuk mencapai kemenangan di hari Idul Fitri dimana jiwa-jiwa umat Islam menjadi suci kembali setelah saling memaafkan.

Di Indonesia, hari raya Idul Fitri sering disebut dengan istilah khas, yaitu Lebaran. Hari raya ini menjadi sangat istimewa karena rangkaian tradisi untuk menyambutnya juga beraneka ragam. Mulai dari makanan yang menjadi menu wajib saat Lebaran, sebut saja ketupat, opor ayam, rendang daging, sambal goreng kentang dan emping yang akan dihidangkan untuk menjamu keluarga dan kerabat yang datang berkunjung. Dan ada satu lagi yang unik, yaitu tradisi mudik.

Mudik dapat berarti pulang ke udik atau pulang ke kampung halaman. Bila ditelusuri lebih jauh, mudik itu bukan merupakan bagian ibadah dalam Islam, melainkan lebih ke tradisi masyarakat Indonesia yang sudah sangat kuat berakar dan berlangsung secara turun-temurun. Jadi pada saat lebaran,

para perantau di kota-kota besar berbondong-bondong akan kembali ke kampung halamannya untuk memohon maaf kepada orang tua, sanak saudara dan handai taulan. Para perantau ini pulang dari berbagai terminal bus, stasiun kereta api, pelabuhan ataupun bandara, mereka seperti digerakkan oleh sebuah kerinduan massal akan suasana lebaran di kampung halaman dan mungkin kerinduan kepada teman-teman di masa kanak-kanak.

Nampaknya kemajuan teknologi, seperti telepon, sms, e-mail dan fasilitas sosial media lainnya belum sepenuhnya bisa menggantikan tradisi mudik ini, karena teknologi ini tidak bisa mengambil alih kepuasan secara psikologis momen bertemu dengan keluarga. Para orang tua memperkenalkan anak-anaknya kepada kerabat dan saling berkabar berita bahagia. Di samping itu, mudik juga digunakan sebagai sarana rekreasi dan beristirahat sejenak dari rutinitas pekerjaan sehari-hari.

Yang terutama adalah bagaimana tradisi mudik ini tidak menyimpang dari esensi beribadah di bulan Ramadan itu sendiri yaitu setelah menjalankan kewajiban mengeluarkan zakat fitrah,



melaksanakan sholat led, dan saling memohon maaf, kita berharapkan memperoleh kemenangan hakiki yaitu pembaharuan dalam bersikap menjadi manusia dengan kualitas yang lebih baik di mata Tuhan, dan membawa lebih banyak manfaat bagi masyarakat dan lingkungan sekitar.

매년, 이슬람교도들이 항상 기다리는 달이 있다. 그것은 라마단, 이슬람교도들의 영혼이 이룰 피트리(금식 후 축제)에 이르기 위해 한 달 내내 금식과 금욕 등 다양한 신앙 활동을 행하고 서로를 용서한 후에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장점이 많은 달이다.

인도네시아의 큰 축제일인 이룰 피트리는 흔히 르바란이라는 특수한 용어로 불린다. 이 축제일은 축제를 맞이하는 다양한 전통들로 인해 매우 특별하다. 르바란 때 의무적으로 만드는 음식메뉴, 말하자면 들도 가족과 친척들을 대접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다. 바로 귀성 전통이다.

무딕은 고향이나 상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무딕은 (단지) 이슬람의 신앙활동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뿌기 깊은 전통이다. 르바란이 되면 대도시의 모든 유민들은 가족과 친척, 부모님께

지난달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르바란 전통에 대한 글을 신는다. 르바란 전통은 우리네 추석과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 아무리 멀고 고단해도 마다하지 않고 되풀이 되는 귀성 풍습은 애뜻하기까지 하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 회귀본능이 아닐까.

-편집자-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버스나 기차, 배, 비행기를 이용해 귀향하는 그들은 어릴 적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의 르바란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따라 가는 것처럼 보인다.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은 이 귀향의 전통을 대신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과학기술은 가족과 만나는 순간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모들은 친척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소개시키고 행복한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 외에 귀향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로부터 잠시의 휴식과 휴양의 방법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귀성 전통이 라마단 달 신앙활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부금 의무를 이행하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본질적인 승리를 원한다. 다시 말해, 신 앞에 보다 나은 자질을 갖추어 나아가고 지역과 사회에 더욱 쓸모 있는 인간으로 변모된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북한정권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략정보실장)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직후 파죽지세로 만주에 있던 일본의 백만 관동군을 격파하면서 북한으로 들어왔다.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지역을 점령하였다. 소련은 군대만 북한에 보낸 것이 아니었다. 소련은 북한지역을 점령한 붉은 군대 제 25군단을 위한 무기 등 군수품과 식량 그리고 향후 북한지역에 세울 소비에트 사회주의 정치체제건설을 위한 소련인 고문들, 기술자들, 붉은 군대에서 복무한 조선인 간부들도 동시에 열차에 실어왔다. 열차만 보낸 것은 아니었다. 소련군은 나진과 원산 등 북한 항구들에 군용화물선들을 보냈다. 해방 후 한 달여가 지난 9월 19일 소련군 화물선 ‘푸가초브’ 호는 88여단 소속 조선인 부대원 70여명을 원산항에 부려놓았다. 바로 그 속에 김성주가 있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이다. 그는 한때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김성주가 속했던 항일연군의 소부대는 일제의 토벌이 강화되면서 소련 연해주 하바롭스크 근처의 브야츠크 지역에 있던 소련 극동군 사령부 직속 88여단에 보내졌다. 바로 이 88여단에서 김성주는 붉은 군대 대위의 군사칭호를 받는다. 당시 88여단의 지휘관은 주보중이라는 중국인으로서 소련군 중좌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 밑에 최용건이 소좌로 있었다. 북한정권에서 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던 최용건이라는 상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자주적이었고 친중적이었던 이들과 달리 소련과 스탈린에 가장 충실했던 만만한했던 김성주를 북한정권의 1인자로 만들었다. 당시 북한주둔군 사령관 겸 붉은 군대 25군단 사령관이었던 치스차코프와 정치선동과 선전의 귀재들인 소련군 정치부 고위 장교들은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 김성주 대위를 전설적

인 항일의 영웅인 듯 포장하여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키고는 북한인민 앞에 내세웠다. 김성주처럼 소련군 열차와 화물선들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온 소련군 고문들과 소련 공산당 및 정부 그리고 소련군에서 근무하던 조선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1946년 2월 16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이를 모태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립되었다. 말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지 사실은 북조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창건된 것이다.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 당, 군대, 보안기관 각 곳에 소련인 고문들이 자리를 잡고 북한을 실제로 통치하였다. 소련과 북한이 ‘인민’ 이니 ‘민주주의’ 이니 온갖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붙여 나라를 세웠으나 이 공화국은 소련이 소비에트 체제를 열차에 실어와 북한지역에 세워 놓은 소련의 위성국가에 불과하였다. 36세 나이에 내각수상이 된 김일성은 소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였다. 친소괴뢰정권을 세운지 채 2년도 안되어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과 허가를 받아 한국전쟁을 도발하였다. 소련제 최신행 T-34형 탱크와 자주포 전투기들로 무장한 동시에 모택동이 보내준,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조선인 부대들은 북한군의 주력이 되었다. 이들은 전쟁도발 3일 만에 남한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였다. 만일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변영하는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고 전 한반도가 소비에트화 되었을 것이다. 6. 25전쟁에서 패한 김일성은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들을 연이어 숙청하면서 북한에 자신만의 독재체제를 세워나갔다. 그는 세계사적 흐름을 반하여 폐쇄경제를 건설하였고 개혁과 개방도 거부하였다. 그의 고집으로 오늘의 북한은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더 가난

한 나라로,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국가로 전락하였다. 이도 모자라 김일성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은 감히 시도하지 못한 부자세습을 단행하여 맏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군사 제1주의이며 군부독재인 이른바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체제를 강화하고 1인 독재를 공고화하였다. 그는 한정된 자원으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들을 개발하였지만 그 대가는 컸다. 2백만 명의 주민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여기에 그는 한국의 영해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총 46인의 젊은 생명들을 앗아갔고 한국 영토인 연평도에 방사포 사격을 가하는 7.27 정전 이후 최대의 군사적 도발들을 일으켰다. 핵실험 등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김정일은 무산광산 등 북한의 지하자원들과 각종 이권들을 중국에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는 북한각지에 특각들, 사냥터들, 관저들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기쁨조’와 함께 사치스럽고 부패한 생활을 누리

고 있다. 덧붙여서, 김정일은 자신의 26세난 막내 아들 김정은에게 2009년 권력을 넘겨주었다. 세상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후계자 김정은은 첫 번째 정책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북한의 중산층을 붕괴시켰다. 그는 현재 1700억 원짜리 호화주택을 평양에 건설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정권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독재국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올해 초 중동의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은 중동에서 북한과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화 혁명은 시리아와 이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일은 현재 중동의 재스민 혁명의 불꽃이 북한에 옮겨 붙지 않게 하기 위해 온갖 권력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주민들을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영원히 짓누를 수는 없을 것이다. ●●

이민청 단속 관련 안내

1. 이민청은 최근 당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스폰서에 대한 감독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식당,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대하여 샘플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인 종업원의 스폰서인 업소의 대표가 실질적인 오너로서 스폰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며, 이민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 규모가 큰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업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조사결과 업소의 현지인 대표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오너가 외국인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업소 설립자체를 원천 무효 시키는 한편, 외국인 종업원에 대하여는 체류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 이민청의 입장입니다.
4. 교민 여러분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인도네시아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2011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금 액
1	한인회 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11	\$20,000
2	한인회 수석 부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2011	\$10,000
3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1	\$10,000
4	한인회 부회장	김주철	PT. STARCAMTEX	2011	\$5,000
5	한인회 부회장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1	\$5,000
6	한인회 부회장	조용우	외환은행	2011	\$5,000
7	한인회 부회장	최대호	PT. KIWOOM SECURITY	2011	\$5,000
8	한인회 부회장	황의상	PT. INWHA INDONESIA	2011	\$5,000
9	자문 위원	김영만	KIPCO CO. LTD	2011	\$1,000
10	자문 위원	김우재	PT. KOINBUMI / MUGUNGHWA	2010	\$1,000
11	자문 위원	박현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1	\$1,000
12	자문 위원	양영연	PT. BOSUNG INDONESIA	2011	\$1,000
13	자문 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11	\$1,000
14	자문 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1	\$1,000
15	이 사	강주석	PT. SERIM INDONESIA	2011	\$1,000
16	이 사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2011	\$1,000
17	이 사	강희중	PT. SUNG TECHNOLOGI	2011	Rp.8,600,000
18	이 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1	\$1,000
19	이 사	김경국	PT. N E S	2011	\$1,000
20	이 사	김두련	PT. MIWON INDONESIA	2011	\$1,000
21	이 사	김문호	PT. DADA INDONESIA	2011	\$1,000
22	이 사	김상태	SMS GROUP	2011	\$1,000
23	이 사	김성국	PT. PERTA SAMTAN GAS	2011	\$1,000
24	이 사	김영도	PT. QUTY KARUNIA	2011	\$1,000
25	이 사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1	\$1,000
26	이 사	김원관	PT. GF INDONESIA	2011	\$980
27	이 사	김종성	PT. BONGMAN INTERNATIONAL	10/11	\$2,000
28	이 사	김철회	PT. BK GLOBAL LESTARI	2011	\$1,000



서로 돕는 한인 사회 · 서로 믿는 한인 사회 · 발전 하는 한인 사회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29	이사	남상달	PT. PARKLAND WORD	2011	\$1,000
30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2011	\$1,000
31	이사	류봉열	PT. HANIL INDONESIA	2011	\$1,000
32	이사	박성대	PT. HANJIN IND JAYA	2011	\$1,000
33	이사	석웅치	PT. DAYUP INDO	2011	\$1,000
34	이사	송판원	PT. KORYO POLIMER	2011	\$1,000
35	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2011	\$1,000
36	이사	안홍제	PT. KOLON INA	2011	\$1,000
37	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2011	\$1,000
38	이사	유주완	PT. FEEL BUY INDONESIA	2011	\$1,000
39	이사	윤석환	PT. SUNG SHIN IND.	2011	\$1,000
40	이사	이상일	PT. U I B	2011	\$1,000
41	이사	이석태	PT. U F U	2011	\$1,000
42	이사	이준하	PT. DAELIM INDONESIA	2011	\$1,000
43	이사	이철훈	PT. INDOBOX UTAMA JAYA	2011	\$1,000
44	이사	장주현	PT. INKO PRIMA UTAMA JAYA	2010	\$1,000
45	이사	전민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1	\$1,000
46	이사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2011	\$1,000
47	이사	조호신	PT. SONERGY	2011	\$1,000
48	이사	차상만	PT. HANKOOK CERAMICS	2011	\$1,000
49	이사	최광수	PT. BIG STAR INT'L TRADING	2011	\$1,000
50	이사	이종억	K A L	2011	\$1,000
51	이사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2011	\$1,000
52	이사	현정규	PT. MEKAR SAMMI JAYA	10/11	\$2,000
53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INDONESIA	2011	\$1,000
54			NO NAME	2011	\$1,000
TOTAL					\$111,980
					Rp.8,600,000

광고문의 521-2515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021 527 2612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69 124
버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61 453 8669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엘.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보고르한인회	7782 886
빨렘방한인회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KOWIN)	08128078607

●교민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120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65 3077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84 6674
주님의교회	831 3843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량 폐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hunting) F 521-2478 doowang@cbn.net.id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있는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광고문의
521-2515

독자들이
오래 소장하고 싶어 하는
<한인뉴스>
높은 광고효과와
후원의 기쁨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술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	-----	------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생활정보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뜨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 ㅈㅈㅈ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가루다오리엔트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유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	-----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KEMBAR REJEKI	527	2245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동서증권	526	1326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리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리도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브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하숙집

쉼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집	1757	5525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279	1020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

(회장 한상재)	0811	188 612
미술협회(인치혁)	0813	1514 9978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김영희)	0815	181 3102
리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 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문화연구원(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엄종한)	0811	177 503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발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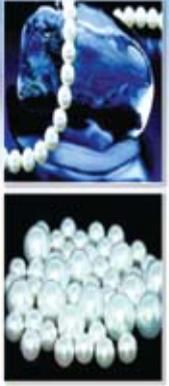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0816-873-176
HP.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골)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등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등렌트카	0821 1616 3300
반등한인부동산	0858 6011 0777
반등컴퓨터 A/S	0821 1616 3300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한인뉴스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YUNDAI



HYUNDAI Truck

Yang Memberikan Keuntungan Ini Bagi Anda!

- Untung!** Karena irit bahan bakar
- Untung!** Karena tak pernah rusak
- Untung!** Karena dapat perawatan di manapun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SAMICK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자녀의 평생음감을 좌우하는 첫 피아노,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피아노 선택은 정확한 음감으로 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음감으로 많은 전문가에게
사랑받는 전통 독일형 삼익(삼익) 피아노,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 the First Piano —

SAMICK